

| SRI-기획-2017-02 |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ublic Art Management in Suwon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수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구정화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김 겸 (김겸미술품보존연구소 대표)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차승화 (한양사이버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최현주 (서울여대 현대미술과 초빙교수)
황록주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선임)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 행 인 이재은
발 행 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 쇠 2017년 8월 18일
발 행 2017년 8월 18일
디 자 인 더에이치(주) Tel.031-247-5141
I S B N 979-11-87778-46-2 (936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17.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1. 서론

- 수원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누적되어 있어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실정임
- 다양한 맥락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을 도시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도시 차원에서 어떠한 공공미술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진단하여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및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공미술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공공미술은 특정장소 설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소일반 미술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설치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의미를 담은 공간일 수 있고 회화나 조각 등의 전통적인 시각예술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설치미술, 사진, 영상 퍼포먼스, 교육활동, 축제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가지며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일 수도 있고 이동가능한 것도 있음
- 공공미술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건축 속의 미술’,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등을 통해 제도화 되기 시작함
- 공공미술은 1960년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나 도시공간의 미화를 위해 시민공원이나 광장 같은 외부공간에 벽화나 조각을 설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1970년대 도시계획 과정과 결합하여 공공미술의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특정 장소에 맞춰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특정한 성격의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을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개입의 예술실천, 과정 중심의 예술 작업이 특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로 확장됨

3.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조사

- 수원시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조형물, 그 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은 조각 등 유사한 설치물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각기 다른 근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관점을 가지기 어려움
-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 심의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움
-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경관위원회에는 미술 등 시각예술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설치 신청 작품에 대한 심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원시 공공미술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공공미술 비전 및 방향을 설계하는 단위는 부재함
- 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 사항에는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분실·용도 변경되어 보수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따르는 제재 조치가 규정 없음
- 수원시 공공미술 작품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기존 목록과 실제 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사업 및 관리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추진 주체의 다양함으로 인해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 유형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지역적 다양함을 보이는 인계동과 보조적으로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최근 조성된 광고 일대를 추가하여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총 305점의 조형물 및 시설물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점이 설치되어 있음

설치 목적	하위분류	조사 수량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217점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30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표석 등)	23점
	편의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10점
	보행안전시설물(블라드, 펜스 등)	3점
	녹지시설물(분수대 등)	6점
	공급시설물(전력함 등)	5점
	기타시설물(시계탑, 기타 등)	11점
총 합		305점

- 건축물 미술작품은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물 로비 벽에 회화 작품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며,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테마 거리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에도 조각품, 회화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 거리 등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조형물인 경우도 존재함
-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의 기능을 하는 안내시설물이나 일반 공중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영역에 설치한 편의시설물의 경우 심미성의 향상을 위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인해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또한 미관을 개선하고 심미성 향상을 꾀하고자 각종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조사 결과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거나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유명 작품을 카피하거나 유명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됨
-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나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또한 관리체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
-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전체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및 기획이 부재하며,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과 작품 활용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4.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조사

- 공공미술과 관련한 국외사례는 독일 뮌스터시의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독일 카셀시의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기획 Kassel Document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독일 베를린시의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의 사례를 조사함
- 국내사례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사례,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사후 관리 및 활용 사례, 서울시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를 살펴봄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첫째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둘째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셋째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5. 수원시 공공미술 개선 방안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개방된 외부공간에 현존하는 매우 다양한 조형물들을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로 나눌 수 있고 ‘실용적·

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시설물로 분류하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용적·기능적 목적이 없이)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을 (해당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공공미술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중에는 그 설치장소의 성격에 따라 공공용지 등 공적영역에 설치한 것이 있으며,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건물 외관 등 사적영역에 설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공공미술 작품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에 한정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시가 직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지더라도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이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사적영역 설치물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공적영역 설치물 (공공용지 등)
민간 (개인, 단체, 기업 등)	예술적 목적 - 민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공공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공공조형물 일반,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등)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 수원시 전체 공공미술 현황에 대한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용방안 모색은 불가능하므로 목록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정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수원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하고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신규 작품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예술성과 장소성에 대한 심의 기준과 함께 예방적 보존 차원에서의 심의 기준 마련, 적절한 작품

환경과 작품의 유형 등을 사전에 논의,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작품 선정 과정, 콘셉트 등을 자문, 공공미술 사후관리(유지, 보수, 매각, 처분 등) 등 지속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구 구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으로는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공미술,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적 제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를 제시함

주제어: 공공미술, 공공공간, 공공조형물, 시민참여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공공미술 이론	7
제2절 주요 선행연구	12
제3장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조사	15
제1절 공공미술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15
제2절 조사개요	22
제3절 수원시 공공미술 유형화	25
제4절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문제점	35
제5절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의 종합	40
제4장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분석	43
제1절 해외사례	43
제2절 국내사례	55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65
제5장 수원시 공공미술 개선 방안	67
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 기본 방향	67
제2절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75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부록	85

| 표 차례 |

<표 2-1> 공공미술의 다양한 정의	7
<표 2-2> 공공미술의 개념	8
<표 2-3> 공공미술의 변천 과정	11
<표 3-1>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추진배경 및 현황	16
<표 3-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17
<표 3-3>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	18
<표 3-4> 공공조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19
<표 3-5>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25
<표 3-6>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26
<표 4-1>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55
<표 4-2>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61
<표 5-1>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근거 제도 및 법령	68
<표 5-2> 공공미술 관리 대상 도출을 위한 분류 기준(안)	69
<표 5-3>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 I (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72
<표 5-4>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 II(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73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1-3> 연구의 흐름	6
<그림 3-1> 조사지역 인계동 전도	23
<그림 3-2>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 - 조각 사례(인계동 상업지구)	28
<그림 3-3> 수원시 공공조형물 - 조각 사례(효행공원)	28
<그림 3-4> 수원시 공공미술 사업 - 벽화 사례(인계올레길)	29
<그림 3-5> 민간이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 - 벽화 사례	29
<그림 3-6> 상징조형물 - 동상 사례(다산 정약용 흉상)	29
<그림 3-7> 상징조형물 - 상징탑 사례(인계예술공원 내 현충탑)	30
<그림 3-8> 상징조형물 - 기념비 사례(효행공원 내 효행비)	30
<그림 3-9>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사례(나혜석거리 표지 조형물)	31
<그림 3-10> 편의시설물 - 벤치 사례(영통지역 상가 인도)	32
<그림 3-11> 편의시설물 - 퍼걸러 사례(인계동 나혜석거리)	32
<그림 3-12>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 사례(인계동 나혜석거리)	33
<그림 3-13> 녹지시설물 - 분수대 사례(광고)	33
<그림 3-14> 공급시설물 - 전력함 사례(인계동)	34
<그림 3-15> 기타시설물 - 시계탑 사례(효원공원, 수원시청)	34
<그림 3-16>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공공미술 사례	35
<그림 3-17>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설치 흔적만 남은 공공미술 사례	36
<그림 3-18> 사람에게 의한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36
<그림 3-19>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37
<그림 3-20>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미술 사례	38
<그림 3-21> 도시재생 등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미술 사례	38
<그림 3-22> 민간 자의에 의한 설치물 사례	39
<그림 3-23> 각기 다른 작품 표석의 내용	40

<그림 4-1>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	45
<그림 4-2> 카셀 도큐멘타 작품의 활용 사례	49
<그림 4-3> 레이체 레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52
<그림 4-4> 베를린 공공공간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 프로젝트	54
<그림 4-5> 피터 아이젠만의 <99칸>	56
<그림 4-6> 조성룡의 <기억의 현재화>	56
<그림 4-7> <쿡폴리> 콩집 외관	59
<그림 4-8> <쿡폴리> 콩집 내부	5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공공미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 탁월한 공공미술은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과 도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질이 낮은 공공미술작품이 난립할 시에는 도시 미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함
- 비록 탁월한 공공미술작품일지라도 기후 변화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기간 내 훼손되고 수명이 단축되어 도시 흉물로 전락하기 쉬움
- 근래에 벽화 작업 등 공공미술을 통해 낙후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 재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후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후 도리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문제가 되어버리는 실정임

2)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를 파악할 필요

- 수원시에는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누적되어 있음
 - 건축물미술작품: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어 공공미술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짐
 - 공공조형물: 공원, 테마거리 조성 등 각종 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에 동상·기념탑·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이나 조각·공예 등 조형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마을벽화 작업이나 공공미술 작가들이 진행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원시 외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수원 지역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누적되어 있음
- 오랜 기간 각기 다른 맥락에서 산발적으로 공공미술이 행해지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임

3)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운영방안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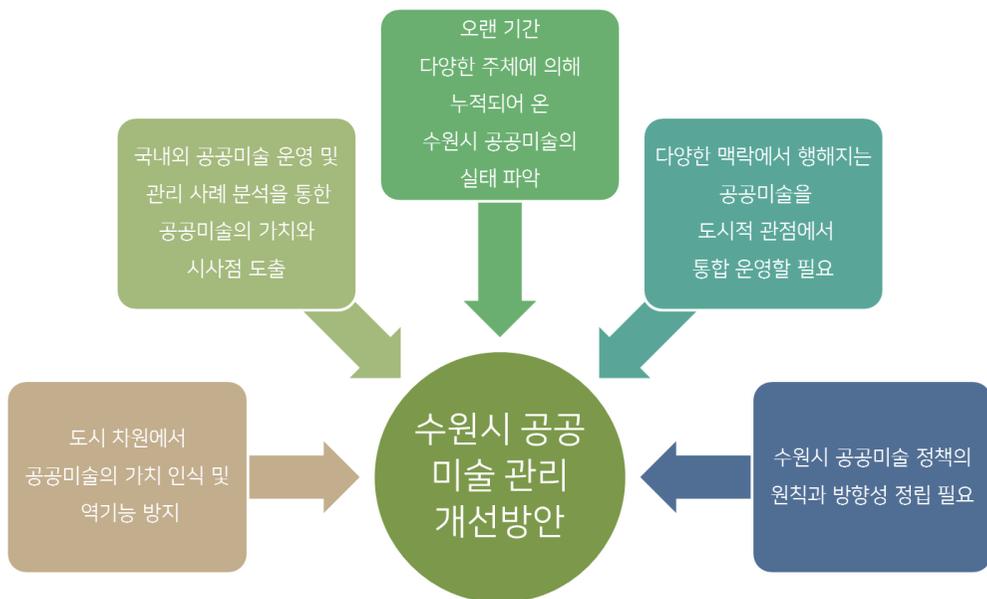
- 다양한 맥락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을 도시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여 도출되는 통합적 관점의 운영·관리방안이 필요함
- 개인, 단체 등 개별 민간 주체와 각 행정 부서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에서 공공미술 운영관리를 일임할 수 없으며 공론장의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주체 통합적인 공공미술 관리방안이 필요함
- 공공미술은 도시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생산의 관점과 결합하여 작품 자체에 대한 미학적 접근 뿐 아니라 경관에 대한 디자인적 심의와 재료에 대한 공학적 검증 등 분야 간 통합적 관점의 운영·관리방안이 필요함

4)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정립 필요

- 최근 공공미술의 흐름은 커뮤니티 기반의 공공미술,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강조되어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질문과 그 표현을 담은 상징적 의미 형성으로서 공공미술이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공공미술 방법론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면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지역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며,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공공미술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원시는 아직까지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도시 차원에서 어떠한 공공미술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진단하는 것에 있음
- 실태와 진단을 바탕으로 수원시 공공미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수원시 공공미술이 도시 환경과 조응하여 보다 조화롭게 유지·보존할 수 있는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유지·보존·처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향후 시 차원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장조사는 수원시 내 일정 구역에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계동 전역과 수원역, 영통, 광고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 추진함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었으며,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조사지역 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에 설치된 각종 공공조형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도시 사업에 의해 설치된 작품과 기타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닌 모든 설치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2. 연구의 방법

1) 문헌 검토

- 도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 개념, 공공예술 담론,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등 공공미술 선행연구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공공미술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원시 공공미술 자료 수집 및 검토

2) 전문가 자문

-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공미술 분류 기준 설정 및 관리 방안 도출
- 한국의 공공미술작품 보존 관리 현황과 문제점,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공미술 작업의 유의사항,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공공미술 정책 방향과 역할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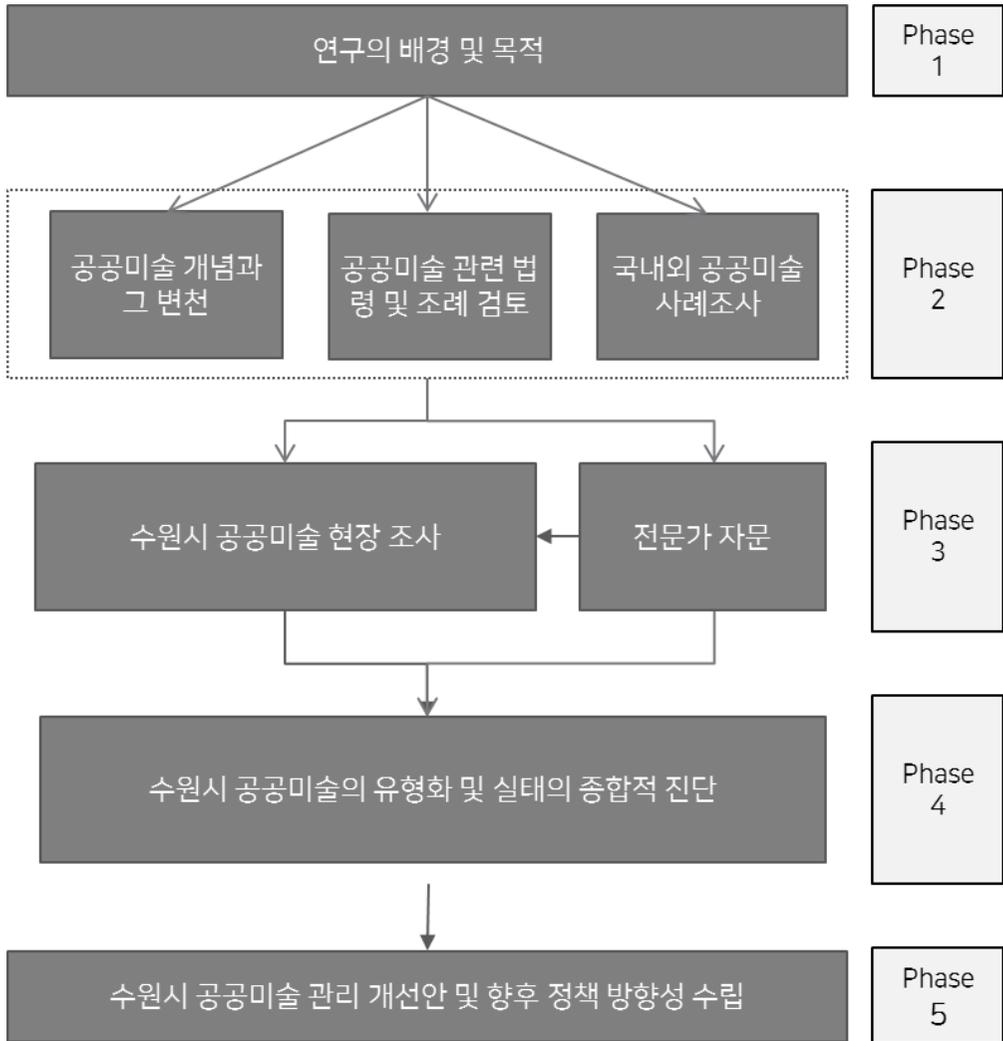
3) 사례조사

- 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독일 뮌스터 시의 Sculptur Projekte,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 Beyond Leidsche Rijn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례조사
- 국내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광주 폴리 프로젝트,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례조사

4) 현장조사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된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 조사
- 작품명, 작가, 작품의 세부적인 위치 정보 등의 수집
- 설치 환경 및 관리상태, 주변 경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 사진 DB 구축

3. 연구의 흐름



<그림 1-3> 연구의 흐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공공미술 이론

1. 공공미술의 개념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 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양현미(1999)는 공공미술을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 온 것으로 개념화함
 -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의 구입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 으로 제도화
- 권세기(2002)는 일반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
 - 어떤 장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site specific work)’ (Robert Smithson)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일반 미술(site-general art)’ 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
- 멜컴 마일스(2000)는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하고 소유하는 미술품” 으로 정의함
- 김혜진(2010)은 “일반 대중(Public)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 로 정의하면서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개념의 확장과 함께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해졌음을 지적함

<표 2-1> 공공미술의 다양한 정의

저 자	공공미술 의미의 해석
양현미(1999)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
멜컴 마일스(2000)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하고 소유하는 미술품
권세기(2002)	대중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작품
김혜진(2010)	일반 대중(Public)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

- 공공성(公共性)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짐
 - 예를 들어, 장소와 관계되면 공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목표나 이슈에 주목할 경우 공공적 관심(public interest)으로, 재원의 출처에 초점을 맞추면 공공자금으로 접근 가능
- 따라서 공공미술¹⁾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문화관광부, 2006)
 - 공공미술은 특정장소 설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소일반 미술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공공미술작품의 설치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의미를 담은 공간일 수도 있음
 - 회화나 조각 등의 전통적이 시각예술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설치미술, 사진, 영상, 퍼포먼스, 교육활동, 축제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가지며, 영구적 형태의 공공미술, 이동 가능한(portable) 공공미술, 임시적인(temporary) 공공미술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공미술 개념이 확장됨

<표 2-2> 공공미술의 개념

항 목	내 용
공공미술의 의미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
공공미술의 대상	‘대중’ (시민, 군중, 관람객, 수혜자 등)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향하며,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 대중과의 연결매체로서의 작품 대중이 작품을 소유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미술가,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에 의한 자발적 조성
공공미술 설치장소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일상 및 생활주변 모든 공공장소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간은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
공공미술작업 및 형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지역 공동체, 관람객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 시도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공공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영구적/반영구적/일시적 작업(이벤트성 작업) 등 다양한 형태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p.16

1) 영어의 public art는 공공예술로도 공공미술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미술 분야에서 시작했으나 현대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실천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여겨 예술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2. 공공미술의 변화와 확장

- 현대 공공미술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젝트(Public Works for Artists)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1950년대 미국의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와 1951년도에 제정된 이와 유사한 프랑스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역시 공공미술의 초기 형태로 보고 있음
- 미술계에서 ‘공공미술’ 이라는 용어는 1967년 영국의 미술 행정가인 존 윌렛(John Willett) 의해 최초로 공식화되었음
 - 윌렛은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the City)』에서 아트디렉터와 화상, 큐레이터, 평론가, 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취향이 마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 공공미술을 고안하고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함

1) 공공장소에서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 1960년대 공공미술이 제도화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1967년 미국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였음
- 공공미술의 설치장소가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확장
 -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도시공간의 미화 등을 위해 시민 공원이나 광장 같은 외부 공간에 벽화나 조각을 설치하였음
 - 대중에게 미술관 밖에서 우수한 예술작품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
- 이 시기 공공의 개념은 장소의 비제도성과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가능성을 의미하는 정도였음
-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모더니즘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으로 인한 비판 제기
 - 전시장소가 실내에서 공공공간으로 옮겨졌을 뿐 대중과 유리된 작가 중심의 현대미술의 경향을 유지
 -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 혹은 문화적 엘리트주의(Cultural Elitism) 이념에 기초

2)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s)

-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 이라하기도 함
 - 지방정부가 도시 재개발이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계획이나 개발 과정에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금제(Pooling System)를 도입하여 공공건설 비용의 일정비율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였음
- 특정 위치에 맞춰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특정한 접근(Site-specificity)
 - 공공미술은 자율적 작품이기 보다는 그것이 놓이는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함
 - 벤치,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대신하거나 거리나 광장의 패턴을 꾸미고 울타리, 벽 등을 작품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공간의 미적 쾌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의미로 공간을 받아들여게끔 함
 - 미술가가 도시디자인 팀의 일원으로 건축가, 조경설계사, 도시계획가, 도시 디자이너, 도시 행정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술, 건축, 조경 사이의 통합을 추구

3)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 1980년대 후반 주제, 매체, 방식, 대중과의 소통 등에서 기존의 공공미술 관습과 크게 차이를 보이며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공공미술 등장
 - 공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개입의 예술 실천
 - 공공 공간이 사람들의 삶터로서의 장소이며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함
 -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보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과정 중심의 작업이 됨
 - 단지 물리적 조건에 맞춰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구함
 - ‘공익 속의 미술(Art in Public Interest)’ 라고 불리기도 함
- 수잔 레이스(2010)는 ‘지금까지의 공공미술이라고 불린 것과 다르게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 로 정의
 - 주제는 대개 미술가와 주민이 함께 결정하며 미학적·예술적 목적보다는 주로 지역사회의 당면한 이슈와 관련되어 결정됨

- 매체는 조형물이나 벽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 아니라 퍼포먼스나 미디어아트 같은 실험적이거나 비전통적인 매체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함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후 다양한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로 발전하게 됨

〈표 2-3〉 공공미술의 변천 과정

	Art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Art as Public Spaces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	New Genre Public Art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주요시기	1960-1970년대	1970-1980년대	1980-1990년대
목적	공원,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미술을 통한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공동체 형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관공서건물이나 고층빌딩 앞의 광장에 놓인 모더니스트 추상조각 • 스튜디오작품을 확대해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플롭아트(Plopart)로 비난받음 • 차츰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곧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광장, 빌딩, 산책로 등의 상설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들의 디자인에서 미술가와 건축가, 조경전문가, 도시계획가, 도시행정가 등과의 협력으로 미술, 건축 그리고 조경 사이의 거대한 통합을 추구하는 오브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장소를 의식하는 미술 •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둠 •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형성하기 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중점을 두며 디자인 전문가들보다는 사회적 주변인 집단들과의 공동 작업을 수반하는 정치적 의식을 가진 공동체 이벤트나 일시적 프로그램들 •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 주민참여가 필수적 요소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 시각예술을 넘어서 장르 다양화
중점	오브제 중심	공간 조성 중심	공익/사회 중심
우선권	작가	작가→관객	작가&관객
사회와의 관계	폐쇄	개방	참여/개입
공공미술의 의제	도시 미학	장소 특수성	공동체성
공공성의 출처	공공장소 (물리적)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기능적)	공적 관심 (사회 정치적)
공공미술의 태도	문화적 엘리트주의 (Cultural Elitism)	타 영역과의 협업	문화적 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공공미술의 역할	사회통제의 기능	도시공간의 질 향상	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적 의견 표출수단

출처 : 서울디자인재단(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P.51.

제2절 주요 선행연구

1. 도시 차원에서 공공미술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주요 연구

- 조경진 등(2006),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현대공공미술은 ‘건축속 미술’ 일변도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계획과 통합되고 커뮤니티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됨을 주목
 - 도시차원에서의 공공미술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공미술 정책결정권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의 관심과 의식을 제시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 전략을 추진할 공공미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건의
 - 향후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빙의 지속적 보강 및 투자확대 건의
- 김태호 등(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 제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미술 건립과 유지에 대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책임주체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 작품의 선정, 설치, 관리, 활용 등을 총괄하는 ‘공공미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종합관리시스템’ 제안
 - 작품의 수명주기(수명기한제), 존속에 대한 중간평가, 철수 절차 도입 건의
 - 공공미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책임인력이 전체를 총괄하고 단계별 문제상황에 의사결정에 의사결정
 - 전통적 공공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미술과 커뮤니티 아트 등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저변 확대 건의
- 라도삼·이정현(2016),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3천여 점의 서울 공공예술작품 설치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선행연구들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
 - 작품의 관리체계를 「영구설치형」, 「일시설치형」, 「예술활동형」으로 분류 제안
 - <공공예술위원회> 및 전담기구 설치 : 심의 및 관리기구 일원화, 공공예술의 미래비전과 주요 사업 설계 역할 담당
 -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 제시

- 양현미(2016), 서울시 공공미술의 통합적 사후관리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
 - 서울시의 공공미술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와 자치구의 시책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설치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 서울시 공공미술의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공공미술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의 제정
 - 분산되어 있는 공공미술 관리체계를 공공미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
 - 기존작품의 재평가와 누락 작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 공공미술 컬렉션(Seoul Public Art Collection)을 구축 제안

제3장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조사

제1절 공공미술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수원시 공공미술은 근거하는 법령 및 조례를 기준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그 외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근거하는 법령 및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그 시행령과 이에 기초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이 있음
-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없으며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그 외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관련한 법령 및 조례가 없어 제도적 관리체계 밖에 있음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의 건축 비용(현행 규정상 1천분의 7)을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한 제도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며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규정함
-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1995년 이후로 많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기 시작함
- 2011년 법 개정으로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작품’이란 다음을 의미함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추진 배경과 현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음

<표 3-1>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추진배경 및 현황

구분	내용
권장시기 (1972~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82년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신설 •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 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1988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기준이 완화되어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서울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의무화시기 (1995~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7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3일부터 시행(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1997년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 개혁 작업단이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로 분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
규제완화 시기 (2000~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술장식비용은 0.7%에 머물고 있음
기금제 도입기 (20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5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을 통해 ‘미술장식’ 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 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p.27

2) 제도 운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설치 절차와 방법,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감정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표 3-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촉 해제, 심의위원의 의무, 회의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감정·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
 -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사후관리 및 활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 가 ”
-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심의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정기 조사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의무만 있음

<표 3-3>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

<p>「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7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설치·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도지사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①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매년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2.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1) 개요

- 공공조형물 관련한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2016년 1월 제정)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15년 10월 제정)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
-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의미함
- 두 조례 모두 그 내용상 크게 공공조형물의 설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제도 운영

■ 공공조형물의 설치

- 설치 신청 절차 및 조건, 비용 부담, 설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설치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 명시

<표 3-4> 공공조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립위치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관련성
 2.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 그 주변 환경 등과의 조화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 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 설치기준에 대한 심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심의, 형상·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심의 등을 심의함
- 두 조례 간의 차이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상태 점검 주기 등
 - 수원시 조례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수원시 조례의 경우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사후관리 및 활용

-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하여 경기도 조례 제14조(관리)와 수원시 조례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훼손 시에 보수에 필요한 조치,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음
- 두 조례 간의 차이점
 - 경기도 조례의 경우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해, 수원시 조례의 경우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공공조형물의 홍보, 교육, 관광,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명시

3. 분석 및 시사점

1) 관리 체계 밖의 공공미술들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 외에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
- 설치-사후 관리-활용에 대한 고민과 야기될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단기간에 작품의 수명이 다하여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수원시의 경우 마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벽화 사업을 다수 진행해왔는데, 벽화 작업의 경우 작업하는 벽과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작품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수명 기한, 적합한 재료 및 작업 방식, 재질별 보존 처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 왔음

2) 동일한 장르의 설치물, 분리된 관리체계

-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그 시행령,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됨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은 조각 등 동일한 설치물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각기 다른 근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음
-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공공 설치물은 도시미학 및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장소성과 조응하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다른 관리체계 하에 놓여 있어 통합된 관점을 가지기 어려움
-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심의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수원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질적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움

3)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 비전 및 방향 설정 단위 부재

-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경관위원회에는 미술 등 시각예술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총 8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이 중 10~15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개별 설치 신청 작품에 대한 심의 위주로 운영
-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미술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제도 근거만 존재하고 수원시의 공공미술에 관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여 공공미술 비전 및 방향을 설계하는 단위가 부재함

4)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미비

- 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 사항에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가
- 공공미술 작품의 홍보, 교육, 관광,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공공미술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및 조치가 없음
-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비용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후관리 실패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영구적인 설치보다는 일시적인 설치로 전환하고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미술 자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설치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유지보존 및 철거 절차,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공공미술 관리 체계가 필요함

제2절 조사개요

1. 수원시 공공미술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수원시 문화예술과의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 전체 현황 점검을 통해 설치 심의를 받은 전체 302개의 건물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였고 작품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설치 심의를 받은 전체 302개의 건물 중 25개 건물에는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277점의 건축물 미술작품 중 54점의 작품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조형물은 관리 주체가 산재되어 있어 수원시 전체 공공조형물 목록이 취합되어 있지 않음
 - 각종 도시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 역시 다양함
 - 예를 들어,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에 설치된 기념조형물은 수원시 국제통상과가, 나혜석거리의 기념조형물은 수원시 위생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음
- 공공미술 프로젝트 역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나 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지만 근거가 되는 관리 체계가 없으며,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있지 않음
 - 다만, 2015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아카이빙 조사단을 꾸려서 수원문화재단 인근 수원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조사하고 ‘수원문화지도’라는 이름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321점을 DB화함
 - 이 DB에는 행궁동, 매향동, 교동, 지동 등 벽화마을의 벽화 작품과 2013 수원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4 수원유람 수인선 스토리텔링 발굴육성 사업(수인선 세류공원)의 결과물이 포함됨
- 전체 공공미술 현황에 대한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사후관리 체계의 운영과 활용 방안 수립은 불가능함

2. 조사대상 선정

1) 조사지역

- 수원시 내 일정 구역에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계동을 조사지역으로 선정
 - 인계동은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재개발 단지(구 주택가) 등 다양한 형식의 주거지역이 있으며 수원시청 등의 공공기관과 인계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기업들의 사무공간이 밀집한 업무지구와 변화한 상업지구가 있음
 - 또한 효원공원, 인계예술공원과 같은 녹지구역이 있으며 나혜석거리,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등 수원시가 도시 사업을 진행한 공공용지가 있으며 인계동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주관하여 조성한 인계올레길이 있음
- 인계동 지역에 더해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와 최근에 조성된 광고 일대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함



<그림 3-1> 조사지역 인계동 전도

2) 조사대상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었으며,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조사지역 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에 설치된 각종 공공조형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도시 사업에 의해 설치된 작품과 기타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닌 모든 설치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 공공미술 개념 안과 바깥을 포괄하는 모든 설치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파악하고 공공미술 관리 대상과 문제를 도출하고자 함

3. 조사방법

-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닌 설치물에 대한 사진 촬영
 - 전경과 4방향에서 작품 촬영, 작품 표석이 있는 경우 표석 촬영
 - 작품이 위치한 골목 어귀에서 골목 경관 촬영
- 지도상 정확한 위치 확인
 - 주소 및 해당 건물이나 부지 내 정확한 설치 위치를 지도에 표기
- 작품의 세부 상태 확인
 - 세부 상태 특이사항 기술 및 세부 상태 사진 촬영
 - 주변 방해물 등 감상 환경 특이사항 기술 및 관련 사진 촬영
- 조사지 작성을 통한 공공미술 유형 분류 및 수원시 공공미술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 유형화

1. 유형분류방법

-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 크게 분류함
-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다시 조형시설물과 상징조형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형시설물은 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들 수 있고 상징조형물은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이나 기리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적에 대한 상징탑, 기념비를 의미함
-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에는 그 기능에 따라 안내시설물, 편의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기타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들 시설물은 가고자하는 건물이나 지역 등을 안내하거나 보행자의 휴식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 본 조사에 포함된 이들 시설물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미적·장식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시설물들임

<표 3-5>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설치 목적	하위분류	종류(장르)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	조각, 회화, 벽화, 공예
	상징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동상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표석, 옥외광고물
	편의시설물	벤치, 퍼걸러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 펜스 등
	녹지시설물	분수대, 가로수보호대
	공급시설물	전력함 등
	기타시설물	시계탑, 기타

2. 조사 결과

- 인계동 전역과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일부, 최근에 조성된 광고 지역 일부에서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된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 총 305점을 조사함
-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남
 -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점 조사됨
 - 그 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미적·장식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각 시설물들의 조사 수량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6>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설치 목적	하위분류	조사 수량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217점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30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표석 등)	23점
	편의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10점
	보행안전시설물(블라드, 펜스 등)	3점
	녹지시설물(분수대 등)	6점
	공급시설물(전력함 등)	5점
	기타시설물(시계탑, 기타 등)	11점
총 합		305점

3. 공공미술 유형화

1)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조형시설물

- 조각, 회화, 벽화 등이 해당하는 조형시설물을 제도, 정책 등 설치한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 민간의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로 분류할 수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민간이 사적 영역에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은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로비 벽에 회화 작품을 설치한 경우도 있음
-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테마거리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에도 조각품, 회화작품이 설치되어 있음
-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원시에는 벽화, 조각 외에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설치되어 있는 조각, 회화, 벽화 역시 전형적인 장르 관습에 머무는 작품이 다수임
- 외부로 노출된 사적영역에 민간이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해당 업소에 대한 주목을 끌기 위해 행해진 것이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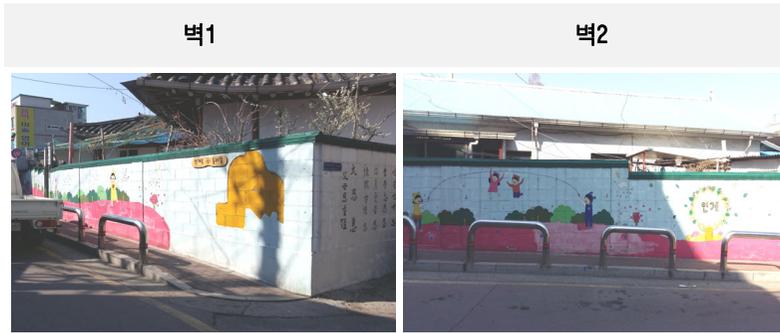
<그림 3-2>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 - 조각 사례(인계동 상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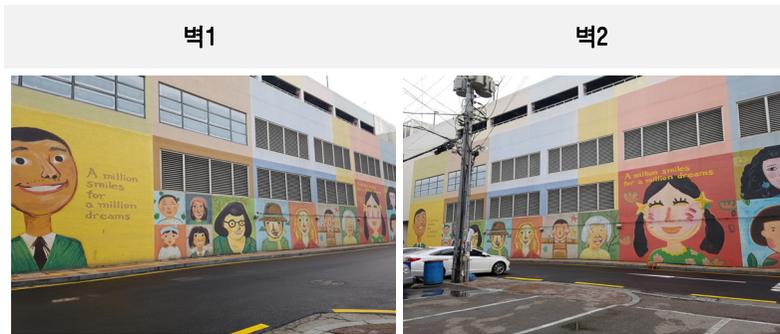
<그림 3-3> 수원시 공공조형물 - 조각 사례(효행공원)



<그림 3-4> 수원시 공공미술 사업 - 벽화 사례(인계올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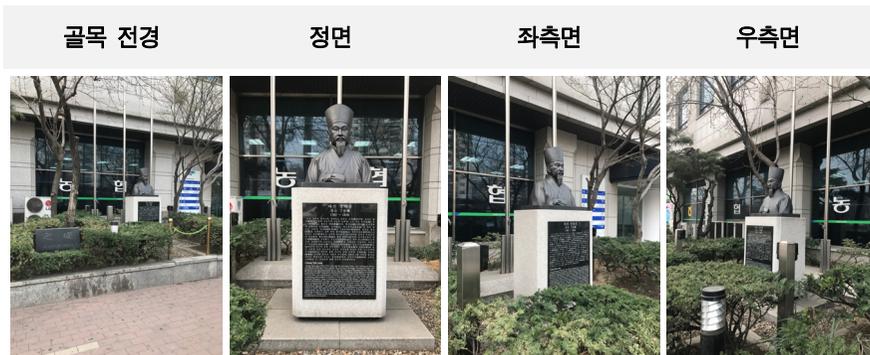
<그림 3-5> 민간이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 - 벽화 사례



(2) 상징조형물

-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 거리 등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조형물인 경우도 존재함

<그림 3-6> 상징조형물 - 동상 사례(다산 정약용 흉상)



<그림 3-7> 상징조형물 - 상징탑 사례(인계예술공원 내 현충탑)



<그림 3-8> 상징조형물 - 기념비 사례(효행공원 내 효행비)



2) 실용적 · 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표석 등이 해당하는 안내시설물은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임
-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의 기능을 하는 시설물에 심미성의 향상을 위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하여 공공미술과의 교집합적인 설치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안내사인이면서 조형물을 광고법에 근거하여 광고물 심의를 해야 하는지, 공공조형물 심의를 해야 하는지 논쟁점임
 - 광고물로 분류하면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공조형물이라고 판단하면 설치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그림 3-9>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사례(나혜석거리 표지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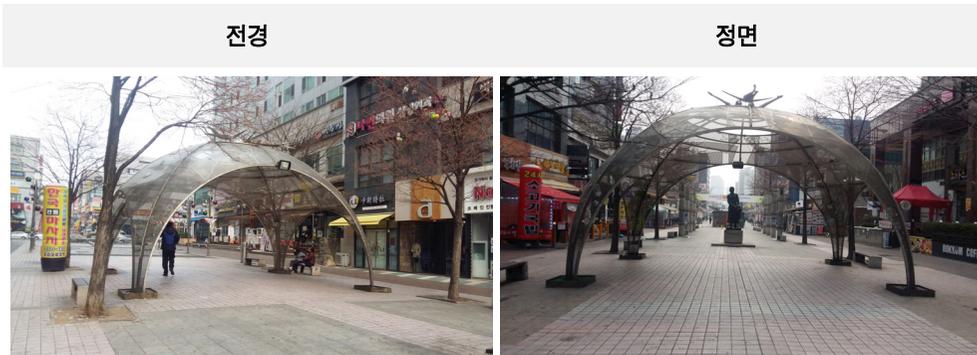
(2) 편의시설물

- 벤치, 피걸러 등이 해당하는 편의시설물은 일반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영역에 설치한 시설물임
- 안내시설물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조형적 요소를 반영하여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한 설치물임

<그림 3-10> 편의시설물 - 벤치 사례(영통지역 상가 인도)



<그림 3-11> 편의시설물 - 퍼걸러 사례(인계동 나혜석거리)



(3)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 펜스 등이 해당하는 보행안전시설물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거나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 볼라드나 펜스에 장식적인 조형물을 가미하여 디자인하는 사례들이 있음

<그림 3-12> 보행안전시설물 - 블라드 사례(인계도동 나혜석거리)



(4) 녹지시설물

- 심미성의 향상을 꾀하고자 분수대와 그 주위에 각종 조형적 요소를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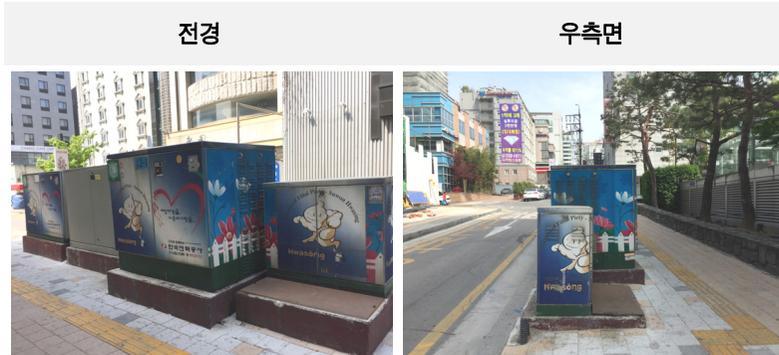
<그림 3-13> 녹지시설물 - 분수대 사례(광고)



(5) 공급시설물

-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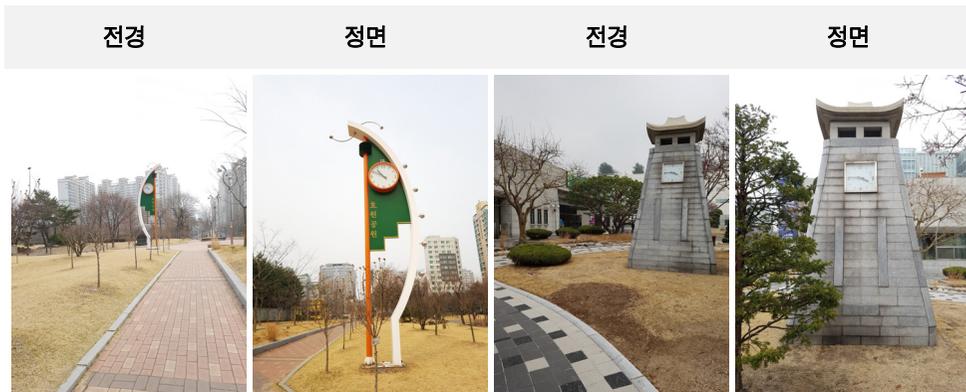
<그림 3-14> 공급시설물 - 전력함 사례(인계동)



(6) 기타시설물

- 공공시설물 중 위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시설물의 경우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일정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에 조형적 측면이 어우러져 있음

<그림 3-15> 기타시설물 - 시계탑 사례(효원공원, 수원시청)



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문제점

1. 공공미술작품 관리 문제

1)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공공미술

- 조사 결과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져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발견됨
 - 쓰레기 처리 장소나 일반 공중이 진입하기 어려운 막다른 건물 귀퉁이에 작품이 놓여있는 사례가 있음
 - 작품과 맞닿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작품에 쓰레기통과 청소 도구가 비치된 경우, 작품 주위에 펜스를 둘러치고 해당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건물의 조경이나 소화전 등에 작품의 일부가 가려진 사례도 있음
- 이들 사례는 대개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어 건축물 미술작품의 의무적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행정의 작품설치 심의 이후 사후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건축주와 일반 공중, 작가, 행정이 모여 공공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보나온 공공미술을 논의하는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함

<그림 3-16>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공공미술 사례



2)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치

-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설치 흔적만 남아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 역시 사후관리 체계 및 운영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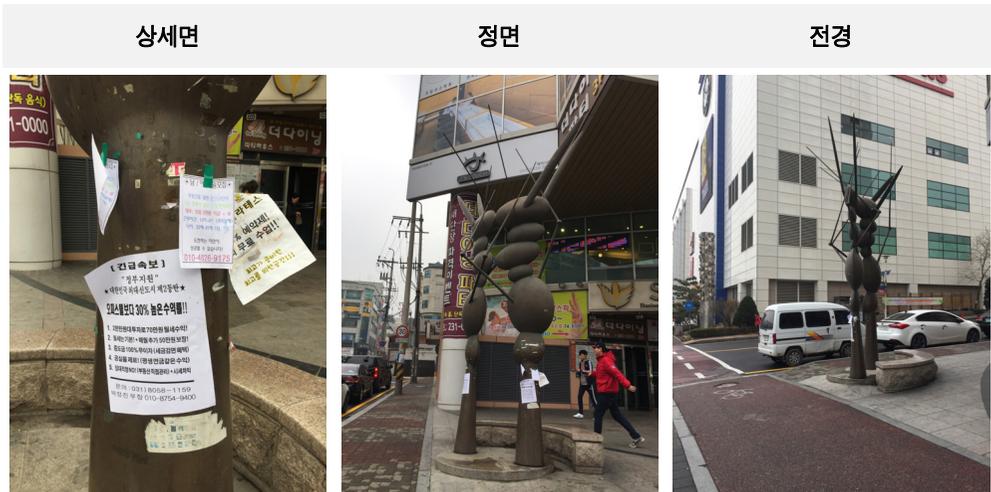
<그림 3-17>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설치 흔적만 남은 공공미술 사례



3) 인적 훼손 상태로 방치

- 낙서가 되어 있거나 각종 전단지 부착된 상태로 방치된 작품들이 존재함

<그림 3-18> 사람에 의한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4)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 훼손 상태로 방치

-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작품에게 필연적임
- 가능한 한 작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지보수 매뉴얼과 사후관리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작품의 재질과 설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설치 기한을 설정하고 철거 절차를 마련해야 함

<그림 3-19>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5)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미술

- 기존 유명 작품을 카피하거나 유명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들이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전적 검토 절차가 필요함

<그림 3-20>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미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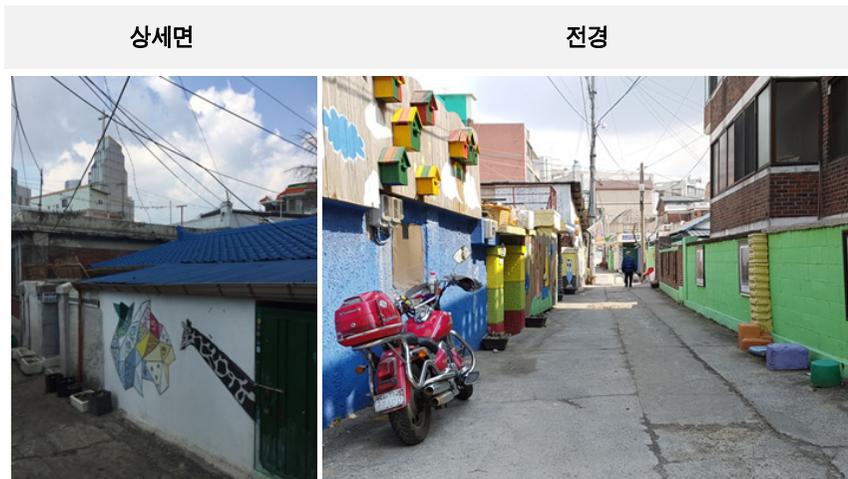


2.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미술

1)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 등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함
- 이로 인해 관리 소홀에 따르는 작품의 도시 흉물화, 저작권 침해 문제, 공공미술의 질적 담보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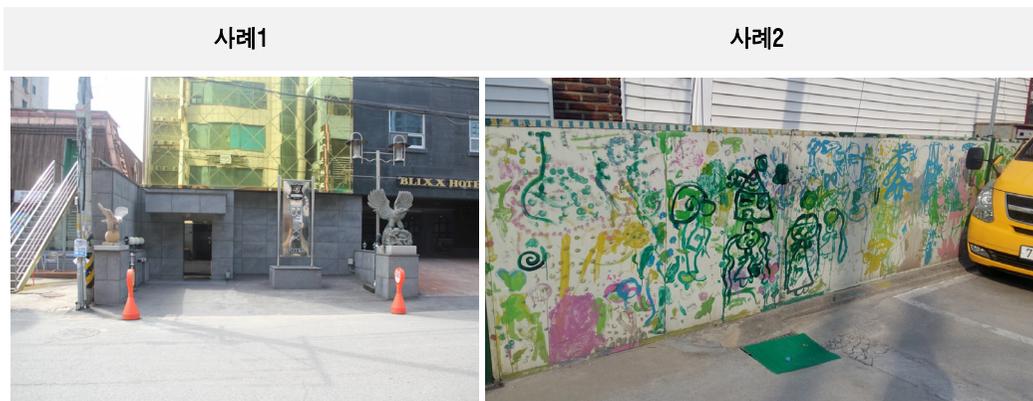
<그림 3-21> 도시재생 등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미술 사례



2) 민간 자의에 의한 설치물

-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 이 중에는 민간 자영업소의 주목을 끌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형 조형물도 포함됨
-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의 개입은 어렵지만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책임 의식과 공공성을 공유해야 함

<그림 3-22> 민간 자의에 의한 설치물 사례



3. 작품 표시의 비표준화

-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으며 설치한 작품 간에도 표시마다 기재하는 정보가 제각각인 상황
- 작품명과 작가, 설치자 및 관리자, 설치일자와 설치기한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 표시에 담아야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책임의식 있는 공공미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작가, 설치자 및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3-23> 각기 다른 작품 표석의 내용



제2절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의 종합

1.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의 모호함

- 공공미술 개념의 광범위함, 공공미술 경계의 모호함
- 행정의 관리 대상 범위 설정 및 명문화 필요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전체 현황 자료 부재

- 수원시 공공미술 현황 목록 취합과 함께 작품 보존과 예술적 가치에 관한 전문적인 작품 상태 점검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작품들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 등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필요
- 이를 추진할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 필요

3.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기획의 부재

-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뿐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 등 도시 아젠다와 결합하였을 때 공공미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공적영역에 개입하는 공공미술 수행에서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 예술과 도시 경관

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 그룹, 행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의 원칙 수립 필요

- 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타 지역 공공미술 사례 공유 필요

4. 수원시 공공미술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의 부재

- 모든 공공미술 작품이 ‘영구 설치물’로 설치되는 실정
- 작품별 설치 기한제 도입 및 기한 후 처분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 공공미술 작품 유지보존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안 필요
- 미술품 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지보수 매뉴얼과 사후관리 전문 인력 필요
- 작품의 재질과 설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설치 기한 및 처분 기준, 철거 절차 설정 필요

5. 수원시 공공미술 활용 방안의 부재

- 공공미술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록물 관리가 가지는 가치 인식 부족
-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써의 공공미술 가치 인식 부족

제4장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조사

제1절 해외 사례

1. 독일 뮌스터 :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1) 배경 및 주요 연혁

- 뮌스터 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복구 작업을 통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하여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됨
- 1973년 뮌스터시 정부가 조각 작품을 구매하면서 공공미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였고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 1960년대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i Moore)가 자신을 작품을 뮌스터 시에 기증하고자 했으나 난해한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예술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70년대 중반까지 시 전체의 이슈가 되었음
 - 1973년 시 정부는 예술계의 항변에 굴복하여 헨리 무어 작품의 대체품으로 미국의 키네틱 조각가 조지 리키(George Ricky)의 작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헨리 무어의 작품보다 더 ‘현대적인’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논쟁이 격화되었음
 - 예술계는 시민사회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지만 동시에 현대예술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시의 여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시정부와 시민, 예술계의 합의로 1977년에 ‘20세기 조각의 역사’전이 열리게 됨
 - 당시 시립미술관 부관장 클라우스 부스만(Klaus Bußmann)과 큐레이터 카스퍼 쾨니히(Kasper König)의 주도로 1977년 9명의 작가를 초청하면서 시작하였는데 쾨니히는 지금까지도 이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음
- 1977년 이후 2007년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장소와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ity)’, ‘장소 이후의 장소(One Place after Another)’,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 등 일관적인 주제의식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작품을 실현시켜 보임으로서 공공공간에서의 미술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 점차 전시되는 작품은 추상적인 주제에서 사회적인 주제로, 고정적 형태의 작품에서 참여적이거나 행위적인 작품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방식에서 자유스런 방

식으로 변화하면서 작품의 형식이 고정된 조형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행위예술이나 해프닝,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아트, 관람객들의 체험 등으로 다원화되어 세계 공공미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 1977년부터 매 10년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유럽의 주요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으며 10년 단위로 하여 예술적 흐름의 변화뿐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문화 마케팅의 성공사례로도 꼽히고 있음
 - 일본의 에치고 쓰마리 등 세계 많은 도시의 공공조각 프로젝트의 계기를 제공했으며 한국에서도 안양조각축제 등이 윈스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2017년에는 6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35명의 작가가 초청되어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2) 프로그램 성격 및 특징

-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비전은 도시와 호흡하는 공공미술을 생산하는 것으로 예술 자체 보다 도시가 핵심에 있음
 -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이 도시를 연구하게 하여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임
 - 초청작가들은 일정기간 윈스터에 머물면서 도시의 역사나 지형학적 맥락 속에서 어떤 작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함
 - 버스정류장, 주차장, 공원, 공사장, 상가 건물 등 생활현장인 도시의 각종 장소에서 예술을 통해 질문을 시민에게 던지고 있음
 - 공공의 장소라는 문제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성과 동시대 이슈를 끌어들이므로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동시대 어느 미술 행사보다 전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 조직위원회는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의 토지소유자와 연결, 건물사용 허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작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 1회 전시 이후 현재 36개 이상의 작품들이 윈스터 시 공공공간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전시가 끝나면 작가에게 반납하나 일부 작품들은 수많은 논의들을 거쳐 윈스터 시정부나 후원자들에 의해 구입되거나 작가의 기증으로 남아있음

- 이 작품들은 윈스터 시정부, 윈스터 박물관(LWL-Museum für Kunst und Kultur), 윈스터 대학 등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음
- 영구 설치 작품의 선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데 위원회는 시민들의 선호도, 도시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추천하여 시의회에 제공함

<그림 4-1>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

Nicole Eisenman, <Sketch for a Fountain>



Cosima von Bonin+Tom Burr, <Benz Bonin Burr>



Michael Smith, <Not Quite Under_Ground>



Jeremy Deller,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ll You(2007-2017)>



3) 시사점

- 예술을 통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의미 창조
 - 예술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기에 예술, 사회, 지역 등에 대한 깊

- 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획의도에 맞춰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음
- 미술관이나 특정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재고할 수 있게 함
-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 됨에 따라 타지에서 온 관람객조차도 전시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게 함
- 소통과 참여로서의 공공미술
 - 프로젝트의 시작부터가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중심에 놓임
 - 전시기간뿐 아니라 제작과정에서도 영상시사회, 토론회, 강좌, 작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과정은 삶과 유리된 예술이 아닌 정치, 환경, 가족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반영된 작업이 되도록 함
 - 공공미술 제작과정 뿐 아니라 이후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사후관리 및 자원활동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 공간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공공미술 작품의 제작
 - 초청작가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뮌스터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워크숍, 주민과의 회합,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 작품이 설치될 공간의 지정학적 여건 및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제작과정을 거친 작품들은 앞으로 전시될 공간의 사회적·역사성을 반영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됨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담아내는 프로젝트
 - 10년이라는 개최주기는 시의 규모에 적합한 예산, 문화적 자원의 수용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주기임
 - 일시적 이벤트나 단순한 미술전시회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도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예술체험과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의도를 실현시키고 있음
 -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들의 알지 못했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하고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함

2. 독일 카셀 :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Kassel Documenta

1) 배경 및 주요 연혁

- 195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에 이르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열리고 있는 국제적인 미술 전시회
 -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전 12년간의 나치의 통치로 인해 국제적인 예술 조류에서 밀려나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함
 - Documenta 1(1955년)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 전역에서 열려왔던 Bundesgartenschau(연방원예전시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미술전시였으나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전시였음
 - Documenta 2(1959년)부터 정식으로 기구를 발족시켰으며 위원회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기 시작함
 - Document 4(1968년)까지는 해프닝, 플럭서스, 행위미술, 반예술 등은 허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전시회 형태를 유지하였음
 - Documenta 5(1972년)는 미술관 위주의 기존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가 포함된 ‘행사’의 성격을 지닌 100일간의 열린 전시로 자리매김함
 - Documenta 14(2017년)은 전 세계 160여 명의 작가가 초청되는 대규모 전시행사임
 - 도쿠멘타는 100일을 넘지 않는 전시를 하기에 ‘100인의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음
- 2017년에 열린 Documenta 14은 글로벌 사회, 경제 이슈의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변화함
 - “Learning from Athene(아테네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최초로 독일 카셀 이외의 도시 아테네에서 함께 진행됨
 - 세계 전쟁의 중심에 있던 독일과 세계 경제위기의 예시 국가인 그리스를 두고 전시가 진행되는 것임
- 도쿠멘타는 단지 미술계 행사가 아니라 카셀 시 전체를 아우르며 35개의 전시장에서 전시가 열리는 도시 행사임
 -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전통적인 미술전시회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예) 극장과 같은 상업적인 대중 공간, 공원이나 광장 등의 야외 공간, 대학의 창고와 홀, 폐쇄된 지하 기차역, 우체국 빈 창고,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2) 특징 및 성격

- 카셀 시는 5년마다 열리는 도쿠멘타를 통해 현대 예술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음
- 도쿠멘타는 카셀 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카셀시의 가장 중요한 관광상품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미술 관련한 업무만이 아니라 공사, 설비,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사업분야가 이 행사와 연결되어 있음
 - 행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력도 많음
 - 카셀의 예술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카셀 시의 예술인력을 키우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을 시도하고 있음
 - 도쿠멘타 초기에는 전위적인 현대 미술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었으나 개최 횟수가 거듭되면서 익숙해졌음
 - 조직위원회가 추구하는 예술적 목표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때로는 조직위원회와 갈등을 빚을 때도 있었음
 - 방문자 센터는 행사 시작 2개월 전에 미리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
 - 행사 준비 상황이나 조직위원회 상황에 대해 지역 소식지를 발행하여 홍보함
 - 각종 시민 모임들에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이 결합하여 함께 토론에 참여하면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함
 - 행사 전 기간(100일) 동안 자유 관람할 수 있는 티켓(€100, 하반기 15% 할인) 및 €2의 1-day 티켓(1-day €20) 판매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쿠멘타의 작품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반환되나 시에서 일부를 구입하여 영구설치하고 있음
 - 구입작품의 선정을 위해서 예술감독, 시 관계자, 미술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 작품을 구입하는 기준으로 예술적 질이 높은지, 이 도시와 설치 장소에 어울리는지, 도시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등을 고려함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작품 선정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작품 구입 기금에 후원하거나 사회단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함
- 작품 구입은 거의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 일부 기업의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음
- 작품의 유지 및 관리는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작품에 이상이 발생할 시 보수나 도색 등의 작업을 시행함
- 정기적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으나 필요시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함
- 작품의 보존·관리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 예를 들어 Laserscape라는 작품의 경우 1m 단위로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수리를 한 경우가 있음

<그림 4-2> 카셀 도쿠멘타 작품의 활용 사례

<p>공공미술 투어코스 안내서</p>	<p>Anatol, <Das Traumschiff Tante Olga>(1977)</p>
<p>Jonathan Borofsky, <Man Walking to the Sky>(1992)</p>	<p>Joseph Beuys, <7000 Eichen>(1987)</p>

3) 시사점

- 카셀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 고취
 - 단지 미술행사로서가 아니라 도시의 이벤트로서 도큐멘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도큐멘타가 열리는 기간은 도시 전체가 특별한 분위기와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갖게 함
 -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방문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민들의 국제적 감각을 형성하게 됨
 - 도큐멘타는 카셀 시민들의 예술적 안목을 높이는데 기여함
- 공공공간을 위한 미술작품의 콜렉팅
 - 도큐멘타 외에 별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없이 도큐멘타를 통해 공공공간을 위한 미술작품 콜렉팅을 하고 있음
 - 예술작품을 구입하고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술교육이기도 하며 동시에 도시에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3.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1) 배경 및 주요 연혁

- 위트레흐트시는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위트레흐트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1995년 레이체 레인 프로젝트 에이전시(Leidsche Rijn Project Agency)를 설립하고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신주거지인 레이체 레인 Leidsche Rijn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함
- 1996년 이와 관련하여 위트레흐트시 예술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f the Arts)는 레이체 레인 신주거지를 위한 공공공간에서의 예술에 대한 ‘레이체 레인을 위한 예술: 천만의 가치를 지닌 눈덩이(Art for Leidsche Rijn: A Snowball Worth 10 million)’ 보고서를 발간함
- 이를 위해 위트레흐트시는 1999년부터 SKOR (Foundation for Art and Public Space)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레이체 레인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계획함

- 2000년 프로젝트팀 비온드(Project Team Beyond)를 결성하고, 시 의회는 레이체 레인 프로젝트 에이전시의 예술 프로젝트를 승인함에 따라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함
- 2001년에 ‘Beyond Leidsche Rijn(레이체 레인을 넘어서)’ 라는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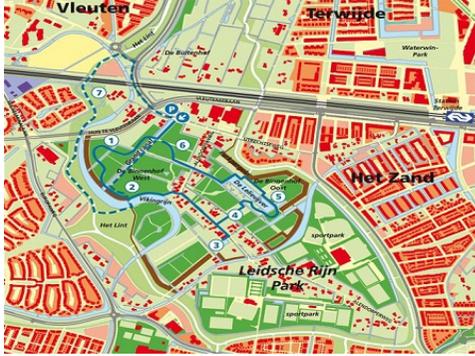
2)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Action Research
 -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험과 개입을 통해 레이체 레인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임
 - 초청받은 예술가들은 Nomad in Residence/No.19 같은 임시 공간(parasite)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주민이나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거나 토론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됨
 -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들은 지역에 개입하고 지역민들은 예술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 Art in Urban Design Projects
 - 기반시설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에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결합시키도록 함
 - 도로나 선로 디자인, 운하의 배치 등 도시공학적인 측면에까지 예술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Artists' House
 - 더불어 살기 위한 인간 활동의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외 거주생활의 핵심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예술가들을 초청해 집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도시화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함
- Parasite
 - 이동가능하면서 실험적인 형태의 가벼운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개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함
 - 이 구조물은 미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거주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활용됨
 - 선구자로서의 예술가들이 형태와 기능의 관점에서 ‘도시’ 라는 개념을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White Spots

- 개발계획에서 임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개발에 포함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공간에 행해진 예술 프로젝트
- 예술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며 경관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에 오히려 예술이 경관의 문화적·역사적 핵심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줌
- 완성된 형태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설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 영구적인 미술작품의 경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전망대 등과 같은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림 4-3> 레이체 레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홈페이지	레이체 레인 개발지역
	
Parasite <Nomad in Residence.No. 19>	레이체 레인 공원
	

3) 시사점

- 도시개발과의 연계와 상호작용
 - 도시개발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주어진 공간에 작품이 들어가는 형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역으로 진행한 것임
 -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반해 비온드 프로젝트는 문화적인 면을 결합시킨 것임
- 예술을 통한 도시개발 과정의 주민 참여
 - 공공미술을 통해 향후 이곳에서 살 거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 제시, 공공미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장소에서 거주민들의 미팅으로 통한 서로의 생각 공유,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는 과정 중 거주민의 의견 수렴 등
 - 공공미술은 주거 단지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 간의 공유의식을 형성하는 매개로 활용함
 - 예술가들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녹아있는 작품들로 인해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희석되는 지역과 땅의 의미와 기억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줌

4. 독일 베를린 : 공공공간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

1) 성격 및 특징

- 지방자치체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문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제도는 거의 없고 대개는 주 별로 다르게 운영됨
- 베를린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는 주정부 제도로 시행되는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공공공간에서의 예술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이 있음
 - 건축주가 예술작품의 설치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미술을 위한 기금제도임
 - 베를린의 공공기관(일부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건축물 포함)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예술품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제공하는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비율이 달라짐
 - 민간이 개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의무가 없음

제2절 국내 사례

1. 광주 폴리 :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1) 배경 및 주요 연혁

- 2010년 광주시는 도시 변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낳는 사업으로서 공공미술을 주목하였고 이에 당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감독이 광주 읍성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는 광주 폴리를 기획한 것이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작임
- 공공미술 혹은 건축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군집 패턴을 형성하여 작품 간 집합적인 에너지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창출하고자 폴리의 개념을 도입함
-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차 폴리 11작품, 2차 폴리 8작품, 3차 폴리 10작품 총 29작품이 설치됨
- 본 사례조사에서는 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검증해온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광주 폴리 프로젝트를 이해하고자 함
- 즉, 공공미술이 공공공간에 개입하여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고자할 때 그 공공공간과 관계 맺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예술 행위가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표 4-1>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차 수	일 자	주요 연혁
1차 광주 폴리	2010. 08. 31. 2010. 11. 26. 2011. 09. 01.	광주 폴리 추진 계획 방침 결정 장소 및 작가 선정 준공식 개최(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픈)
2차 광주 폴리	2012. 04-05 2012. 05-06 2012. 08 2012. 08-11 2013. 04-11 2013. 11. 10 2013. 11. 10-11	총감독 및 큐레이터 선임 광주폴리Ⅱ 현상설계공모사업 추진 폴리시민협의회 구성 및 1차 시민협의회 회의 장소 및 작가선정 작품제작 및 설치 11차 폴리시민협의회 회의 개막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3차 광주 폴리	2014. 01-현재 2014. 10-2015. 02 2015. 06 2015. 08-12 2015. 11-2016. 05 2017. 01. 10.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광주폴리운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시민공청회 개최 총감독 및 큐레이터 선임 장소 선정 광주폴리Ⅲ 쿡폴리 개막행사

자료: 광주 폴리(<http://gwangjufolly.org>)

2) 1차 광주 폴리(2010.08~2011.09)

-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철거된 광주 읍성에 대한 기억의 복원을 통해 광주시 도시공간의 모태를 일깨우려는 기획으로 광주 읍성터를 따라 10개의 작품을 설치함
- 폴리는 고정적 기능과 의미를 담지 않는 일종의 열린 구조체로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적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충장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됨
- 하지만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픈에 맞춰 짧은 기간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그동안 폴리 설치 공간을 이용해왔던 시민과 상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 과정이 없었음
- 결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보행 문제와 상인들의 반발을 일으켜 프로젝트가 가진 의미와 가치가 퇴색함
- 예를 들어, 1차 광주폴리 작품 중 하나인 피터 아이젠만의 <99칸>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음
- 충장로 변화가 중심에 설치된 조성룡 작가의 <기억의 현재화>의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잦은 이동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고 이동에 불편을 초래해 결국 철거되었음
- 미술이 공공공간에 개입할 때 고민해야 할 요소들 - 설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유지 관리 문제 등 -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로 남음



<그림 4-5> 피터 아이젠만의 <99칸>



<그림 4-6> 조성룡의 <기억의 현재화>

3) 2차 광주 폴리(2012.04 ~2013.11)

- 1차 폴리 이후 시민사회 등에서는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발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8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지역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폴리시민협의회’가 조직됨
- ‘폴리시민협의회’가 조직된 시기에는 이미 2차 폴리 감독 선정과 기획안, 예산 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음
- 시와 ‘폴리시민협의회’ 간에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는데, 시에서는 우선 2차 광주 폴리를 진행하며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폴리시민협의회’ 측에서는 ‘광주폴리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폴리에 대해 충분히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한 이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음
- 시와 ‘폴리시민협의회’ 간 수차례의 공개질의와 답변, 재반박 등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짐
- 시는 ‘폴리시민협의회’가 제시하는 5가지 주요 평가와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나가기로 약속하였고 ‘폴리시민협의회’ 또한,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지니는 본래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시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2차 폴리가 진행될 수 있었음
- 당시 ‘폴리시민협의회’의 5가지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음¹⁾
 1. 시민과의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통행식 사업
 2. 광주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3.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의 편의주의적 사업
 4.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 공공사업과 연계
 5. 사업주체와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4) 2차 광주 폴리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변화

- 민관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 구조 정립
 - 사업 주체 외에 ‘폴리시민협의회’가 상시적인 자문을 하고 사업 추진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준의결을 함
 - ‘폴리시민협의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 지역 언론인,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광주폴리평가단(2013), 「광주폴리 평가서」, p.4

- 폴리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일시적으로 ‘광주폴리운영평가단’ 이 평가 주체로 조직되어 해당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함
- ‘광주폴리운영평가단’에는 폴리시민협의회’ 3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3인, ‘문화도시협의회’ 3인, ‘운영평가단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품별 운영파트너 조직
 - 작품 설치 이후 각 폴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 폴리활용과 관리를 맡을 운영 파트너를 선정하였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등 각 폴리와 인접한 문화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간 자원의 확보
 - 각 차수 폴리 프로젝트가 총감독 선임부터 개막까지 소요된 기간이 1차는 12개월, 2차는 20개월, 3차는 24개월로 늘어남
 -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 정산 문제와 관련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간 자원의 부족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작가에게 지역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함
 - 1차 폴리 프로젝트에서 마감 시한이 촉박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 이후 폴리 사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2~3차 폴리를 진행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의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음
- 도시 재생 등 현재 도시의 이슈와 맞물린 작품 기획
 - 3차 폴리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현재 이슈에 접근하여 시민들이 작업에 직접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음
- 사업 추진 체계의 일원화
 - 사업의 시행은 광주시, 사업의 수행은 (재)광주비엔날레, 작품의 관리는 광주문화재단이 시행했으나 이를 (재)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부 중심으로 통합, 재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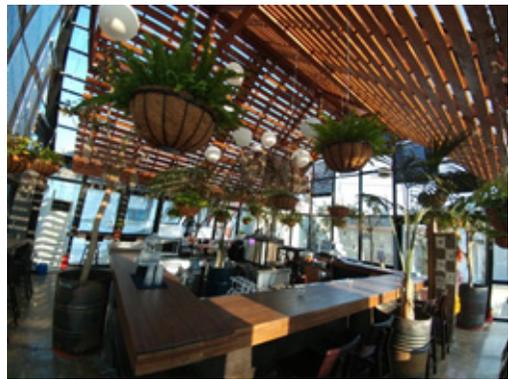
5) 3차 광주 폴리(2015.08~현재)

- 3차 광주 폴리는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 재생 등 현재 도시의 이슈와 맞물린 작품을 기획함

- 광주 폴리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폴리를 해나갈지 작가,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만들
- 빈집을 매입하여 한식 레스토랑과 카페로 리모델링한 <쿡폴리>의 경우 작품 감상의 차원을 넘어 공모를 통한 지역 청년들의 일터를 만드는 차원으로 확장, 현재 지역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이를 통해 직접 <쿡폴리>의 한식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 작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한 <GD폴리>의 경우, 학부모 모임, 환경 단체, 미술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 시 행정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매개가 됨
 - <GD폴리> 추진 과정에서 작품 설치 예정지인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로의 존치 문제와 맞물려 해당 공공공간을 보행전용로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2차선 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였음
- ‘폴리 투어’ 프로그램을 이끄는 도슨트를 시민 대상으로 모집, 운영 중에 있음. 폴리 투어 프로그램은 타 시도 지자체 및 관공서 등 광주 외 지역 사람들에게 폴리를 알리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4-7> <쿡폴리> 공집 외관



<그림 4-8> <쿡폴리> 공집 내부

6) 시민 참여와 협치의 매개가 된 공공미술

- 다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광주 폴리의 경우에도 작가가 생산하여 설치하고 관객은 주어진 작품을 감상하는 전통적인 관계에 그쳤을 때,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미술작품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고자 할 때, 해당 공적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관계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함
- 2010년 1차 광주 폴리부터 3차까지 8여 년의 기간에 걸쳐 광주 폴리가 추진되면서 점차적으로 ‘폴리시민협의회’, ‘광주폴리평가단’, ‘작품별 운영파트너’, ‘광주폴리참여단’ 등이 구성되고 광주 폴리 추진과정에 결합하게 됨
- 광주 폴리가 매개가 되어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고 협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됨
- 사업 추진 주체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려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연 단위 이상의 충분한 사업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음
- 아직 시민들의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설득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협의지점을 찾아나가는 경험들이 광주시의 무형 자산으로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의 누적이 지역에 대한 고민과 이해, 도시 정체성의 형성에 이바지함

1.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 사후 관리 및 활용

1) 배경 및 주요 연혁

- 2000년대 초반 안양은 인구 과밀화문제로 인한 주거 및 여유 공간 부족 문제와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예술화 사업’을 추진함
- 안양시의 도시예술화 사업은 크게 ‘안양아트시티 21’,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의 도시환경에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임²⁾
- 2005년 제 1회 APAP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회의 APAP를 진행하였으며, 5회까지 총 208점을 전시하고 이 중 102점을 영구 설치하였음

2)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홈페이지(www.apap.or.kr)

- 제 3회부터 전시 작품 수와 영구 설치 작품 수를 줄이고 다양한 기획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미술의 확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2014년 제 4회 APAP에서는 그동안의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품 보존·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함
- ‘작품 보존·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0년간 누적되어온 작품들의 보수, 철거 뿐 아니라 이전,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작품 재정비를 단행하며 사후관리와 활용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
- 본 사례조사에서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설치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수립,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목하였음

〈표 4-2〉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일 자	주 요 연 혁
2002년	구 안양유원지의 주변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252억), 자연공원조성사업(185억), 비산조각공원 조성계획 수립
2004년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공공예술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제 1회 APAP 2005 개최 / 구 안양유원지 / 97점 전시, 52점 영구 설치 / 70억
2006년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재단 설립 07년 1월)
2007년	제 2회 APAP 2007 개최 / 평촌 / 45점 전시, 36점 영구 설치 / 42억
2010년	제 3회 APAP 개최 / 안양시 전역 / 22점 전시, 4점 영구 설치 / 45억
2011년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확대 개편 및 업무 이관
2013년	안양파빌리온(APAP 아카이브 및 전시관) 재개관
2014년	제 4회 APAP 개최 / 안양예술공원 및 김중업박물관/ 22점 전시, 5점 영구 설치 / 30억
2016년	제 5회 APAP 개최 / 안양예술공원 및 안양시 일부 / 22점 전시, 5점 영구 설치 / 30억

자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www.apap.or.kr)

2) APAP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

(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및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위원단은 APAP의 실무자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설치하여 누적되어온 총 92개 작품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작품의 안정성, 작품의 의도, 작품 유지 상태, 관람객 만족도, 작품에 대한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함³⁾

(2) 전체 작품별 조치사항 분류

- 검토 결과 총 92개 작품 중 유지 29건, 보수 39건, 철거 18건, 이전 4건, 리모델링 (작품 통합) 2건을 결정함⁴⁾

(3) 작가 동의

- 철거 및 이전 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의 허락을 구하고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김

(4) 이전 장소 물색

- 이전 작품의 새로운 설치 장소에 대해 시와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침

(5) 작품별 조치 시행

3) 사후 관리 체계 수립

- APAP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미술품 보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APAP 영구작품관리를 위한 ‘작품관리 매뉴얼’을 제작함
- ‘작품관리 매뉴얼’은 재질별 분류, 재질별 보존 처리, 작품 손상의 배경과 원인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으며, 작품상태보고서 양식 등을 작성하도록 명문화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의 1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담 관리원을 고용하여 일일 1회 이상 작품 점검 및 청소를 실시 중임

3) 웹진 아르크, (2014.04.21.), “서로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퍼블릭 스토리’, 4회 APAP 개막”
(<http://webzineold.arko.or.kr/?MID=boardInfoPrint&IDX=7&IDX2=1128>)

4) 오마이뉴스(2014.03.28), “작품 보수와 이전, 철거 또한 공공예술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3733)

4) 공공미술 활용 프로그램

- APAP 아카이브 구축
 - 누적된 APAP 관련한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APAP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함
 -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각 회차별 APAP 작품을 장소별, 시간별, 주제별, 작가별로 접근이 가능함
 - 아카이브에는 APAP 관련 공적/행정 문서, APAP 참여 예술가와 작품 관련 자료, 진행 기록물, 공식 발행물과 언론보도 성과물, 구매 단행본 등 문서/비문서 자료, 남아있는 실물 작품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집된 사물, 작품 철거·이전 사유, 작가 의견, 철거 과정 등 APAP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 중임⁵⁾
 -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알바로 시자홀’을 공공예술 도서관과 연구실, 아카이브로 재구성하여 안양과빌리온으로 재탄생시킴
- APAP 투어 프로그램 운영
 - APAP 투어는 관람객에게 APAP를 통해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설명, 가이드하는 공공예술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 APAP의 역사가 쌓이면서 어릴 적 APAP 작품을 관람했던 학생이 현재 시민 도슨트로 활동하며 안양과 공공예술에 대한 애정을 표하는 사례도 나타남

2. 서울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

-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과 도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미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거 조례 체계 정비, 전문가 그룹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형성, 실무 인력 배치 등을 단행하면서 도시 단위에서 통합적인 공공미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조례 통합

- 각기 다른 조례 하에 관리되었던 건축물 미술품(「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5) APAP 디지털 아카이브(<https://4.apap.or.kr/ko/archive>)

제 9장 등)과 공공조형물(「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의 설치 및 관리 체계를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삭제 및 폐지하였음

- 이를 통해 동일한 공공미술 설치물임에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도시미학의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을 갖고자 하였음
- 또한, 기존 관리체계 바깥에 있던 시의 공공미술사업 및 각종 도시 사업으로 설치되는 작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함(「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2항: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 서울시의 공공미술 정책, 제도, 사업, 설치 등 공공미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가 심의 그룹을 조직함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는 미술, 건축, 조경, 환경 전문가와 실무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각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책임심의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이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도시 경관에 일관성을 가지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함
- 공공미술위원회 전신인 서울시 공공미술자문단에서 세운 서울시 공공미술의 원칙은 채우는 공공미술이 아니라 비우는 공공미술로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철거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기존 작품을 모두 리서치함

3) 공공미술사업팀과 공공미술관리팀 신설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산하에 각 팀장 1명, 주무관 5명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사업팀’ 과 ‘공공미술관리팀’ 을 만들
- ‘공공미술사업팀’ 은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 등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을 담당하며 ‘공공미술관리팀’ 은 공공미술작품 실태 전수조사, 공공미술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미술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4)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의 변화, 도시환경의 이해 등에 대해 교육 등을 받고 각 담당 구역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오고 있음
- 실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동네 공공미술 베스트와 위스트를 정리해서 그룹별로 발표하고 위스트 공공미술품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시민발굴단이 현장 실사를 다녀오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작성한 의견서가 행정부에 전달되어 미술관에서 해당 공공미술 작품의 철거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음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을 통해 시민을 공공미술 감상과 비평의 영역으로 유도하고 있음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1.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 도시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며 도시의 장기적이 발전전략, 도시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공공미술 수행
- 도시 재생 등 도시 아젠다와 결합하거나 도시개발과 연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공미술 추진 전략
- 예술을 통해 도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하여 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공공미술을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알지 못했던 장소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함

2.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공적영역 개입으로 인한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간과 관계하는 여러 층위와의 공론장 형성
- 일반 시민과 미술 및 도시 계획 전문가, 지역 언론인과 정치인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논의 구조 확립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삶과 유리된 예술이 아닌 정치, 환경, 가족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역의 이슈와 사회적 문제들을 작업에 반영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

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부여

-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시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사후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연계됨

3.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 도시의 공공미술 원칙 수립과 방향 설정부터 기획, 설치, 유지관리, 활용, 처분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 수립
- 동일한 장르의 공공미술 설치물이지만 다른 제도적 근거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
- 전문가-실무 담당자가 결합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공공미술 운영 기구 구성

4.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 활성화

- 기획 단계에서 설치 기한 및 작품 수명 설정, 이에 대한 작가 동의 확보, 사후관리 예산의 책정 여부 확인
- 작품 설치의 최소화와 의미 공유의 최대화 원칙 확립
- 미술품 보존 전문가에 의한 공공미술 작품 관리 매뉴얼 작성
- 상시적인 관리 인력 배치 및 주기적 점검
- 기획부터 철거 등 처분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 시민 도슨트 운영 등 사후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에서의 시민 참여 증시
-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고 투어 코스를 기획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

제5장 수원시 공공미술 개선 방안

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 기본방향

1. 공공미술 관리 대상 도출을 위한 분류 기준

1) 조형물의 설치 목적을 기본 분류 기준으로 함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은 매우 다양함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이 무엇이며 어느 범주까지인지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술의 본래적 의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미술은 인간의 사유와 정서를 촉진할 수 있는 반성적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오브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술은 그 자체로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니진 않았으며, 비평의 대상으로서 작가와 주제 의식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함으로써 공공미술 관리 대상의 일차적인 분류를 할 수 있음

2) 공공미술작품과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분류

- 개방된 외부공간에 현존하는 매우 다양한 조형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로 나눌 수 있음
-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분류하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음
- (실용적·기능적 목적이 없이)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은 (해당 작품의 예술적 가치, 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공공미술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관련 그거 제도 및 법령을 매치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1>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근거 제도 및 법령

상위분류	하위분류	종류(장르)	관련 근거 제도 및 법령 등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 (공공조형물)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기타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도시 사업 내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은 근거 법령 없음
	상징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탑 •기념비 •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물(각종 기념사업 등에서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등)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안내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표지판 •표석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관법 및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도로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NH공사 조경계획, 설계 지침 등
	편의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치 •퍼걸러 	
	보행안전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라드 •펜스 등 	
	녹지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수대 •가로수보호대 	
	공급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함 등 	
	기타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계탑 •기타 	

3) ‘행정의 관리 대상’ 이 되는 공공미술작품

- 예술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중에는 공공용지 등 공적영역에 설치한 것이 있으며,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건물 외관 등 사적영역에 설치한 것이 있음
- 사인이 사적영역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행정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행정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시가 직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즉,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미술작품은 크게 3가지 영역임
 - 공공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조형물. 여기에는 공공조형물 전반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이 포함됨
 - 민간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조형물. 여기에는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단체의 재원과 설치 신청으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이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마을의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조형시설물 등을 들 수 있음
 - 공공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대지 내 공지나 공개공지, 사유 건축물의 외관 등 사적영역에 설치한 조형물. 시가 민간 소유주와 협의하여 직접 추진하는 공공미술이 여기에 해당함
- 이 외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형성이 가미되었다 할지라도 공공디자인으로 분류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각각의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2〉 공공미술 관리 대상 도출을 위한 분류 기준(안)

	사적영역 설치물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공적영역 설치물 (공공용지 등)
민간 (개인, 단체, 기업 등)	예술적 목적 - 민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공공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공공조형물 일반,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등)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4) 민간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

- 공공미술은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이해와 협의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기획해야하기에 민간의 역량에 대해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함
-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더라도 일반 공중에 노출되는 열린 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과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이 행하는 탁월한 공공미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문제인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관리 체계가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후관리책임 등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더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수원시에 설치하려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권한이나 수원시 건축주가 납부한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역시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이 규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 차원에서 건축주와 작가, 지역주민이 공개된 협의로 만들어가는 공공미술 작업 모델을 추진하여 좋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음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 목록화 작업

1) 현황 목록의 취합 목적

- 전체 현황 목록자료 확보 목적
 - 수원시 전체 공공미술 현황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용방안 모색은 불가능함
- 작품 상태 점검 및 재정비 목적
 - 현재까지 수원시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분류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공공미술 문제의 공론화 목적
 -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흉물화 등 환경공해 문제 ② 질 낮은 작품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미관 손상 등 공공미술이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공공미술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 없으면, 설치 이전 시점에 철거 등 처분 조치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작가와 시 관계 부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 목록화 작업의 절차

(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미술품 보존 전문가, 공공미술 비평가, 도시 계획 전문가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조사 설계, 작품 상태 점검, 재정비 작업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위원단은 작품별 재정비 조치 시행 과정까지 자문 역할 수행

(2) 현장조사

- 기존 현황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현장 조사에 활용
-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은 아래와 같은 공공미술 작품조사표에 정보를 기입
- 현장에서 습득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2차 조사 필요

(3) 전체 작품별 조치사항 분류

- 조사 결과에 대하여 ‘유지’, ‘보수’, ‘철거’, ‘이전’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후속조치 계획 수립

(4) 공공미술 문제의 공론화

- 수원시 전체 현황 목록 및 작품 상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작가 등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후속 처분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의 수원시 공공미술을 논하는 자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함

(5) 작품별 조치 시행

- 이전 대상 작품의 경우 새로운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장소의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보수 대상 작품의 경우 미술품 보존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함

<표 5-3>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 I (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작품조사표 (작품정보관리)			
연 번		유 형	(역사성) 동상 기념비 상징탑
			(일반) 조형물 기타
작 품 명		작 가 명	
설 치 자		제작연도	
	공공용지/국유지/민간용지		
규격(cm) (가로×세로×높이)		재 료	
작품구성		조 명	
작품주소	구 로	상세위치	공원, 광장, 입구, 출구 등
관리기관 (부서)		관 리 자 (연락처)	
민간관리주체		시 공 사	
상태구분	<input type="checkbox"/> A. 온라인 공개와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작품(활용대상) <input type="checkbox"/> B.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작품(관리대상) <input type="checkbox"/> C. 주변경관을 해치는 상태의 작품(철거대상)		
작품정면사진			

자료: 김태호 외(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표 5-4〉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Ⅱ (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작품조사표 (작품정보관리)			
연 번		유 형	동상 기념비 조형물 시설물 기타
작 품 명		작 가 명	
재료 및 기법		설치연도	
상태구분	1. 상태가 안정적이며 훼손부위가 없어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작품 2. 비교적 양호하나 세척처리가 필요한 작품 3. 노화되어 보존처리가 필수적인 작품 4. 안정성이 의심되며 적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가 필요한 작품		
손상범위	<input type="checkbox"/> 중심구조 불안정(중심구조물 파손)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구조손상(흄, 구멍, 장식탈락 등) <input type="checkbox"/> 표면손상(박락, 변색, 긁힘, 낙서 등) <input type="checkbox"/> 화학적 퇴락(부식, 중합체 파손 등)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 공격(곰팡이, 해충공격, 새 배설물 등) <input type="checkbox"/> 먼지에 의한 오염(타르, 먼지 등) <input type="checkbox"/> 전기적 장치 고장(조명, 미디어 장비 등)		
상태기술			
처리방안			
보수계획	보수일정 : 예산 : 보수업체 :		
점검사진 (전체)			
점검일시		점검자(기관)	

자료: 김태호 외(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3.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운영 기구 구성

1) 공공미술의 가치와 역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 탁월한 공공미술이 도시 정체성 형성과 도시 재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질 낮은 작품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미관 손상 문제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공공조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공해 문제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수원시의 현 실태와 타 지자체의 여러 긍정적 사례, 수원시 공공미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미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함

2)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한계 극복

- 심의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확장하여 수원시 공공미술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재원의 제도적 근거가 각기 다르고 추진 주체가 다양하더라도, 도시의 미술 콜렉션 관점에서 공공미술을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전담책임주체가 필요함
-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술 전문가를 포함하여 건축, 조경, 환경 전문가 등 도시 경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3)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의 역할

- 수원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
-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신규 작품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 예술성과 장소성에 대한 심의 기준과 함께 예방적 보존 차원에서의 심의 기준 마련
- 적절한 작품 환경과 작품의 유형 등을 사전에 논의,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작품 선정 과정, 콘셉트 등을 자문
- 의결위원회의 성격으로 작품 선정 및 철거의 전 과정에 관한 사항 결정
- 공공미술 사후관리(유지, 보수, 매각, 처분 등) 등 지속적으로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며 각 단계별 공정성 및 전문성 부여

제2절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1.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는 발전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도시계획이나 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역재생 사업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을 재구성 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위트레흐트시의 ‘레이체 레인을 넘어서’ 프로젝트와 같이 도시개발이나 재생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별개의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공공미술과의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의 이슈, 사회적 문제 등 공공적 의제와 쟁점을 공공미술 작업의 주제화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미술을 공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시민의 참여를 유발하는 문제까지 완결된 한 액티비티가 미술품과 연동되어서 작동하는지가 핵심
 - 공공미술은 이러한 도시적 상상력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기획해낼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재생이나 개발의 과정을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거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 특히 지역개발의 경우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을 공공미술 프로그램 화하여 추진할 수 있음

2.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 현재 공공미술은 결과물의 형태보다 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 자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
 - ‘공공’ 미술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면,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의 사후관리 참여와 활용 프로그램 문제를 포함하는 공공미술의 생명력은 시민과의 소통 수준에 달려 있음
- 공공미술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제작되어야 함
 - 예술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작업 모델 구축

- 예술가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공미술 담론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 되도록 함
-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민워크숍, 토론회, 투표 등
-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사회가 결합해가면서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도록 함

3.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 제고

- 공공미술은 과정이 중요시되긴 하나 결과물의 미학적 질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결과물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
- 조야한 결과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는 예술가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조형물의 설치에서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공공미술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미술 큐레이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과 같이 공공미술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별 주체들의 사업을 위해서 공공미술 컨설팅 또는 자문을 활성화함
- 공공미술 작품에는 지역의 장소적 맥락이나 사회성·역사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함
 -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와 같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은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의무화하도록 함
- 최근의 공공미술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조형물만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혹은 일시적인 공공미술로 확대되었으며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축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 IT를 활용하는 공공미술 활성화

4.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 향후 공공미술 정책은 설치의 최소화하고 관리나 활용 극대화를 지향
 - 수준 낮은 작품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 작품의 양

- 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시행이나 작품의 설치는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기획 하에 엄밀한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작품의 난립을 방지해야 함
 - 신규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작품 설치의 영구적인 작품보다는 설치기한을 한정하거나 임시적인 공공미술 중심으로 추진
 - 보수, 철거, 이전,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작품 재정비를 시행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같이 기존의 설치 작품들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노후 작품들은 보존 및 철거대상 작품 선별, 수명기한 부여 등을 실시
 - 설치와 관련한 허가, 장소 선정 등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보존 및 관리 주체의 다양성은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설치에서 유지, 관리까지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나 설치 주체나 위치 등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분산될 수 밖에 없음
 - 모든 공공미술 설치물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공미술 담당 조직은 기획 및 설치와 DB 관리, 개별 관리주체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작품 보존 및 관리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관리를 위한 재원을 위해 공공미술 사업이나 조형물 건립시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필요
 - 공공미술의 제작뿐 아니라 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도 시민참여를 활성화해함
 - ‘Laserscape Kassel’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지·보수 과정에도 시민들이 개입하게 될 때 지역의 자산으로 의미를 갖게 됨
 - 웹이나 모바일 시민 신고 시스템 구축, 시민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가칭)시민 지킴이 운영 등 일상관리체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5.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

- 공공미술 작품은 단순히 보존·관리를 넘어서 유의미한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형물, 건축물미술작품,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의 연계와 총괄적인 정보 관리 필요
 - 작품명, 작가명, 작품 설명 등을 포함한 작품 표석이나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작품 정보 제공

- 공공미술 정보를 DB화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공
-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작품을 이벤트화하거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나 카셀시의 도큐멘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이벤트이며 관광 프로그램임
 - 카셀시의 경우 도시 전역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한 투어 코스 개발하여 도큐멘타가 열리지 않는 해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 공공미술 작품 지도 및 리플렛 제작, 투어코스 개발 등으로 관광상품화
-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고 예술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 공공미술은 교육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음
 - 공공미술 작품은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위한 교양교육, 예술가 지망생이나 실무자들을 위한 현장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세미나나 워크숍, 특히 커뮤니티 아트와 연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 실시
 - 문화해설사를 공공미술 분야까지 확장하여 시민 도슨트 육성 고려

제6장 결 론

1. 연구 요약 및 종합

- 수원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누적되어 있어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실정임
-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진단하여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및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 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공미술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수원시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조형물, 그 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원시 공공미술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기존 목록과 실제 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사업 및 관리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추진 주체의 다양함으로 인해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 수원시 내에서 지역적 다양함을 보이는 인계동과 보조적으로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최근 조성된 광고 일대를 추가하여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총 305점의 조형물 및 시설물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점이 설치되어 있음

-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는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원이나 테마거리,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인 공공조형물.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 등이 포함되는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이 있으며, 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거리 등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 안내시설물이나 편의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또한 심미성의 향상을 위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인해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 조사 결과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거나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나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또한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전체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및 기획이 부재하며,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과 작품 활용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국외사례는 독일 뮌스터시의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독일 카셀시의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기획 Kassel Document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독일 베를린시의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 국내사례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사례,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사후 관리 및 활용 사례, 서울시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첫째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둘째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셋째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거 및 활용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로 나눌 수 있고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시설물로 분류하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을 공공미술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그 설치장소의 성격에 따라 공공용지 등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설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공공미술 작품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에 한정할 수 밖에 없으나 시가 직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을 포함한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지더라도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또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수원시 공공미술 전체에 대한 목록화 작업과 더불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정비, 수원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하고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를 고려한 심의, 필요한 경우 작품 선정 과정이나 콘셉트 등 자문, 공공미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구 구성을 제시함
-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으로는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공미술,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 제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를 제시함

2. 향후 과제 및 제언

- 수원시 공공미술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점검
 - 기존 자료에 따른 존재 여부, 작품 위치, 규모, 재질, 유형, 상태, 설치 주체 및 현재 관리 책임자 등 작품과 관련된 정보 파악
 - 조사한 정보를 담은 공공미술 종합 목록을 작성하여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술품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철거, 이전, 리모델링 등의 유형에 따른 관리방향 설정
- 개별 관리책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미술 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 작품명, 작가명, 완성일, 설치 장소, 규모 및 재질, 유지보수 점검일 등을 기록하는 공공미술 관리 대장 마련
- 관리 책임자들이 손상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유지, 훼손시 보수 방안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 사후관리 매뉴얼 제작
- 공공미술 관련 법령·조례 사항 개선 및 기관간의 협력 구축
 - 공공미술은 그 속성상 법적 사항이 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법제화 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법령이나 조례는 공공미술의 개념이나 각종 용어 등에 대한 엄정함이 결여된 채 법규화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간의 불일치나 충돌이 발생하며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보이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미술 제도는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개선 촉구 및 수원시의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필요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권세기(2002), 공공미술제도: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 미술장식. 입법정보 제74호, pp.1-17

김혜진(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8호, pp.198-208

남덕현(2008), 집으로 돌아온 탕아?-독일 뮌스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화기획, 유럽사회문화 창간호, pp.5-30

손은하·신나경(2010), 공공미술의 전개와 로컬공간의 재생, 기초조형학연구 11권 4호, pp.135-143

유재길·성원선(2012), 공공미술과 장소로 확장된 예술의지(Kunstwollen)에 관한 연구-1회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3호, pp.215-226

이명진(2010), 공공 미술을 통한 공공 공간의 확장, 인문학논총 15권 3호, pp.97-118

이슬기(2012), 공공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도시공간 속 장르의 변화양상 고찰-뉴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39호, pp.333-366

이현애(2010), “세계언어로서의 추상” : 카셀 <도큐멘타>와 1950년대 독일의 예술정책, 미술사학보 34호, pp.165-195

조경진(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전략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권 1호, pp.89-104

권미원, 김인규 외 역(2013),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문화

멜컴 마일스, 박삼철 역(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문화관광부(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수잔 레이시, 이영욱·김인규 역(2010),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리기, 문화과학사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김태호 외(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라도삼·이정현(2016),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양현미(1999),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양현미 외(2014),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개선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경진 외(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심포지움 Proceedings, 2011년 11월 3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문 자료>

Gestel, Tom van et al(2009), Art as Urban Strategy, NAI Publishers
Whybrow, Nicolas(2011), Art and the City, I.B.Tauris

<웹사이트>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main.do>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https://www.skulptur-projekte.de/>
카셀 도큐멘타 <http://www.documenta14.de/>
Beyond Leidsche Rijn 프로젝트 <http://beyondutrecht.nl/index2.php>
베를린 공공공간 및 건축에서의 미술 <https://www.berlin.de/sen/kultur/foerderung/foerderprogramme/kunst-im-stadtraum-und-kunst-am-bau/>
광주 폴리 <http://gwangjufolly.org/>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https://www.apap.or.kr/>

| 부 록 |

1. 수원시 공공미술 조사 결과 목록

1.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조형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204 (인계동 1114-9)	흠집, 낙서 등으로 작품이 훼손되어 있음	화단과 간판이 작품 앞에 있어서 관람하기 불편함	
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54 (인계동 1114-1)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97 (인계동 1116-3)		화단 식물에 가려져 표석이 보이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87 (인계동 1116-4)		작품 앞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음	
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57 (인계동 1116-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88 (인계동 112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82 (인계동 1125-1)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46 (인계동 1125-2)			
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46 (인계동 1125-2)			
10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1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92번길 50 (인계동 1131-1)	작품에 이끼 흔적들이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88 (인계동 112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중부대로 110 (인계동 206)	작품에 때가 끼어있음		
1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중부대로 130 (인계동 952)	작품에 녹이 슬어있으며 비둘기 분뇨가 묻어있음		
1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565번길 26 (인계동 209-7)	작품에 녹이 슬어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중부대로 96-19 (인계동 1168)		작품 앞에 주차 공간이 있음	
17		조각	사적	민간	인계로 166번길 48-21		작품 주변에 바스가 적재되어 있음	
1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84 캐슬타워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9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작품 앞에 주차 공간이 있음	
2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84 캐슬타워			
2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84 캐슬타워		건물 쓰레기장 근처에 작품을 설치하여 감상 환경 훼손 및 작품 미관 손상	
2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99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9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2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2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78		조형물이 자전거 설치대에 거의 보이지 않음	
2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78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79			
2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80번길 18-23		업소 장식 목적 설치물	
3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291번길 25		업소 장식 목적 설치물	
3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58-11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3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58-11			
3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58-11			
3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12		업소 장식 목적 설치됨	
3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32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3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선로 731			
3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146		길물 쓰레기장 근처에 작품을 설치하였으며, 작품에 빗자루를 거치해놓음	
3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438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3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477	표석이 확인 나무에 가려져 볼 수 없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517			
41		조각	공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		인계 올레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42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43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4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작품명이 새겨진 표석 부분이 훼손됨		
45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46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조각 후면에 빨간 스포레이 자국이 있음	
47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57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작품 주위에서 흙연을 하여 작품 주변에 담배꽂이가 많이 버려져있음	
4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57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5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420			
5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69		작품에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으며, 전단지를 붙인 테이프 자국으로 인해 작품이 훼손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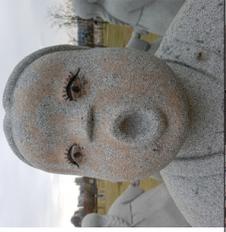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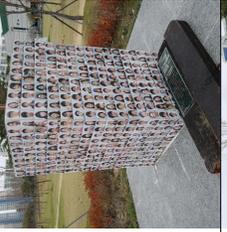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52		조각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인계 올레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53		조각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인계 올레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5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5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5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5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5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5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6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6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6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민간 공방 운영자의 설치로 추정됨	
6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경수대로 534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64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942-9			
65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942-9			
66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939		작품에 전단지를 붙인 흔적과 테이프 자국으로 훼손되어 있음	
6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940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6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169			
69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32-2			
70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929-34			
71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33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72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03-7			
73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03-7		작품에 낙서가 되어있음	
74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03-10			
75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03-10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76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인계동 1117)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7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78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79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0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박태규 작가의 「누가 나를 가로막는가」라는 작품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 작품 설치 흔적과 표석만 남아 방치되어 있는 상태	
81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82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83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4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85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86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87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69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81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8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20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99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113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92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12-67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3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24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4		조각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51-2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5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이의동 207-18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96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이의동 207-18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7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이의동 198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8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범포조 38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99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범포조 38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00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33			
101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3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2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3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3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569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04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579	표석이 손상되어 작품 정보를 알 수 없음	작품 후면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음	
105		조각	공적	공공	영통구 봉영로 1591			
106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영통동 998-3	작품이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파손된 상태임	작품 주변에 업소 광고물과 쓰레기기가 있음	
107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612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작품 주변에 업소 광고용 물품이 많이 놓여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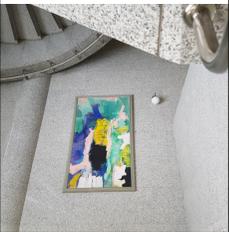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08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620			
109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620			
110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620			
111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작품 아래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메꾼 흔적이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12		조각	사적	민간	영동구 반달로 7번길 16			
113		조각	사적	민간	영동구 봉영로 1605			
114		조각	사적	민간	영동구 봉영로 161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15		조각	사적	민간	영동구 봉영로 1617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16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623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작품에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어 있으며, 작품 주위에 흡연자가 많아 담배꽂초가 많음	
117		조각	사적	민간	영통구 봉영로 1576	작품에 누이 많이 슬어있으며,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18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 51			
119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 45		작품을 설치한 공간에 펜스를 치고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았음. 창고공간으로 쓰고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0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 37			
121		조각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78			
122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88 (인계동 112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123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88 (인계동 1125)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4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171번길 28 (인계동 1001-9)		시설 어린이집 외관에 설치한 회화	
125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174번길 8-6		시설 어린이집 외관에 설치한 회화	
126		회화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127		회화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8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333			
129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333			
130		회화	공적	공공	영통구 반달로 39			
131		회화	공적	공공	영통구 반달로 87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32		회화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57 (인계동 1116-5)			
13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740-10			
134		벽화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도색이 많이 벗겨져 훼손 정도가 심각함		
13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3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번길 1			
137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44번길 27			
13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44번길 31			
139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45번길 18-1 ~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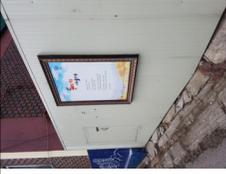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4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4번길 19			
14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33번길 28-37			
142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4번길 4			
14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192-1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44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167번길 17			
14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권선로 733			
14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29번길 5			
147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4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22			
149		벽화	공적	공공	팔달구 경수대로 428번길+호원로 235번길			
15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효원로 249번길			
15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작품에 홍보 전단물이 많이 붙어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52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9번길			
153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칠이 많이 벗겨져있음 바닥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에 보행자에 의해 다른 벽화보다 더욱 쉽게 칠이 벗겨짐		
154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15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5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오래된 주택가의 주차구역이라 작품을 감상하기 어려움	
157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칠이 많이 벗겨져있음 바닥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에 보행자에 의해 다른 벽화보다 더욱 쉽게 칠이 벗겨짐		
15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159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오래된 주택가의 주차구역이라 작품을 감상하기 어려움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161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62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거리에 담배꽂초, 강아지 똥 등이 많음	
16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함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4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함	
16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6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함	
167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69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7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7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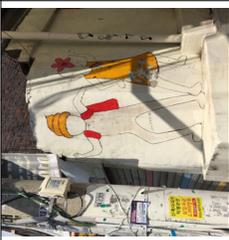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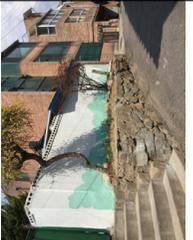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72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7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174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47			
17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7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177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178		벽화	전공	공공	팔달구 인계동 944			
179		벽화	전공	공공	팔달구 권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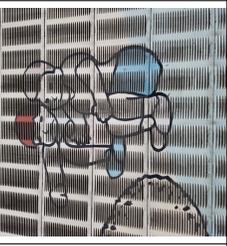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8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59-2	벽이 더러워서 작품이 잘 안보이고 벽에 년륜식물이 붙어서 작품이 가려짐		
18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946			
182		벽화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인계동 1117)			
183		벽화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인계동 1117)	도색이 많이 벗겨졌으며 흙탕물 자국 등으로 더럽혀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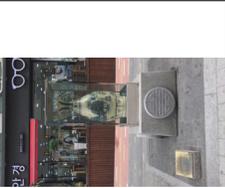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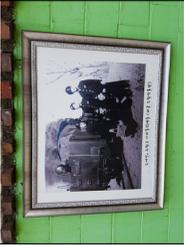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84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175번길			
18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113		벽화 앞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작품이 잘 보이지 않음	
18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113			
187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작품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8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1가 43-3			
189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39			
19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25번길			
19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36		작품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92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21			
19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20		작품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며 벽이 지저분함	
194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15		작품 주변에 음식을 쓰레기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 매우 지저분함	
195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25번길 58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96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50-3			
197		벽화	공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25번길 43-10			
198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25			
199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매신로2가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0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2가 26-56 (갯매산로 55번길 12)			
201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1가 37-24			
202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203		벽화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59-2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4		공예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베트남 하이즈영성 추 다우 도자기	
205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06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07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8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09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0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1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12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3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4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5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16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17		사진	사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4번길			

2) 상징조형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동상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 1116-1)		다산 정약옹 흉상	
2		상징물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 1116-1)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상징조형물	
3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관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캄포디아 시엠립주 앙코르와트 모형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수원시-프라이부르크 시 심벌 마크	
5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상징물	
6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악기 '앙콜롱', 모형	
7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터키 알로바 전통 수도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대석등 모형	
9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드미트리예프스카야 타워 모형	
10		기념물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128		인계예술공원 내 7000인의 시민대합창제 기념물	
11		등상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평결상태 미흡	나혜석거리 내 나혜석 등상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안내판 훼손	나혜석거리 내 나혜석 기념 조형물	
13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중국항저우시 도시 마크	
14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일본 아사히카와 시가지와 다이세조산 연봉	
15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제주거리 내 들하르방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제주거리 내 돌하르방	
17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제주거리 내 돌하르방인상	
18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제주거리 내 호 관장 시조비	
19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제주거리 내 해녀상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원공원 내 호자비	
21		기념비	공적	민간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원공원 내 바르게살자 석	
22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행공원 내 정조대왕 호 어록비	
23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행공원 내 호행문구 석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4		상징물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작품 뒷면에 흰색 글씨로 낙서가 되어 있음	호행공원 내 연자방아	
25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행공원 내 취지문 석	
26		기념비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호행공원 내 호행문구 석	
27		상징탑	공적	공공	팔달구 호원로 241		수원시청 내 수원시민헌장 탑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8		상징탑	국적	국공	팔달구 호원로 308번길		인계예술공원 내 참전유공자공적비	
29		상징물	국적	국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인계예술공원 내 청동인물상 - 현충시설	
30		상징탑	국적	국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인계예술공원 내 현충탑 '미래를 향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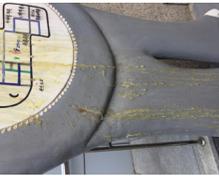
2. 실용적 · 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안내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관광안내 정보안내 사인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인계동 1144)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내 자매도시 정보 표지판	
2		표석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전단지 및 전단지 불인 흔적에 의해 훼손	나혜석거리 표석	
3		관광안내 사인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광고 전단지를 붙였던 지국에 의해 훼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안내 조형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옥외광고 물	공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43			
5		옥외광고 물	사적	민간	팔달구 호원로 307번길 39			
6		관광안내 사인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98		인계올레 안내지도	
7		옥외광고 물	공적	민간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		로타리클럽 석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		표석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토피어리원 비석	
9		관광안내 사인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		수원시 심벌 등 수원시 정보 제공	
10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			
11		안내표지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		아외음악당 건립 표지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2		안내표지	공적	민간	팔달구 수원천로 202번길		인계올레꽃동산	
13		안내표지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인계동 1117)			
14		표석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35번길		현충탑 표석	
15		관광안내 사인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오물에 의해 더럽혀져 있음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6		관광안내 사인	공적	민간	팔달구 세지로 225번길 36			
17		표석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281-12			
18		표석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048			
19		표석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20		정보안내 사인	사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489-7			
21		관광안내 사인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로 123			
22		표석	공적	공공	영통구 청명남로 13			
23		안내표지	공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1가 93-1		수원역전시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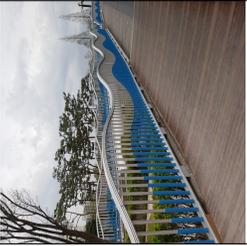
2) 편의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퍼걸러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친장에 새 조형물 장식	
2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3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5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6		퍼걸러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인계동 1117)			
7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로 29번길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		벤치	공적	공공	영통구 영통동 1010-7			
9		벤치	사적	민간	팔달구 매산로 41			
10		벤치	공적	공공	팔달구 매산로2가 30 (매산로 25)			

3) 보행안전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볼라드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있으나 매우 낡아 식별하기 어려움		
2		볼라드	공적	민간	팔달구 인계동 1148			
3		펜스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74-12			

4) 녹지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분수대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음		
2		분수대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3		분수대	사적	민간	팔달구 권광로 246	누이 슬고 때가 끼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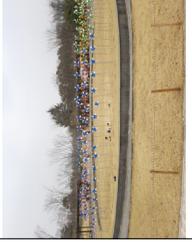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분수대	사적	민간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23			
5		분수대	사적	민간	영통구 범포조 38			
6		분수대	공적	공공	영통구 영통동 1012-4		분수대와 함께 12지상을 세긴 돌이 설치되어 있음	

5) 공공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진력함	국적 국공	국공	팔달구 권광로 187번길 39			
2		진력함	국적 국공	국공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44			
3		진력함	국적 국공	국공	팔달구 효원로 241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진력함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5		진력함	사적	민간	영등구 센트럴파크로 33			

6) 기타시설물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1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권광로 188번길		나혜석거리 기둥	
2		시계탑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효원공원 내 시계탑	
3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동수원로 397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4		시계탑	공적	공공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내 시계탑	
5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31-3		온누리이트홀 앞 기둥	
6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39-3			
7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301-2			

연 번	작품 사진	종류 (장르)	설치 영역	설치자	주소	상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작품 특징 사진
8		기타	공적	공공	팔달구 인계동 296			
9		기타	공적	공공	영통구 봉영로 1591		영통 건우광장 내 기둥	
10		기타	공적	공공	영통구 봉영로 1598			
11		시계탑	공적	공공	영통구 영통동 998-3		영통상거리 시계탑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통계 지표체계 설정 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이정수

사회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jsr@suwon.re.kr

